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0. 1.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1. 평가개요	1
(1) 중점 평가방향	1
(2) 평가추진 개요	1
 2. 평가결과	 4
(1) 총평	4
(2) 주요성과	5
(3) 개선·보완사항	6
(4) 평가결과 종합	7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9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123
 [붙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31

1.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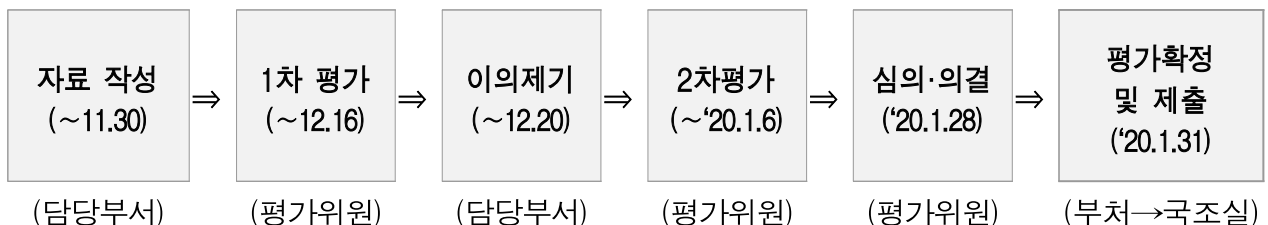
(1) 중점 평가방향

평 가 방 향

- ◇ 농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제(관리과제 50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 국정과제, VIP 지시사항, 일자리대책 등에 맞춰 관리과제(50개) 선정('19.3월)
- ◇ 정량지표(94%), 결과지표(74%)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추진실적 및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부내 의견수렴 및 전문가(KREI)의 검증,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표 설정
-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외부평가위원(29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 정량지표 사전 점검(KREI 성과관리센터), 평가결과(1차 평가)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제고(오류 발생 방지)
-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
 - 부서·개인통합성과평가에 반영(32~40%), 정책개선 등에 활용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평가방법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서 외부평가위원이 평가지표(정량·정성)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자료작성) 관리과제 담당부서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실·국→혁신행정, 11.30일 까지)
- (자료검토·확인) 평가총괄부서(혁신행정담당관실) 및 KREI(성과관리센터)에서 자료 미비사항 확인·보완
 - 정량지표 점검·확인함으로써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방지
- (1차 평가) 제출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위원이 평가 실시, 사전검토 자료 및 사전질의 답변서 제공(12.9주간)
- (이의제기 및 자료보완)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12월말 기준으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 평가자료 보완
- (2차 평가)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재평가 실시(혁신행정→자체평가위원, 12.23주간 ~ '20. 1.6주간)
- (결과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및 부내 보고·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50개 관리과제(40개 과·팀)

농촌		농정		식량		국제		축산		방역		식품		유통		농생명	
계	8	계	7	계	5	계	5	계	4	계	3	계	4	계	6	계	8
농정	2	농정	1	식량	1	국제	2	축산	1	방역	1	식품	1	유통	1	농산업	1
지역	2	농지	1	산업	1	농업	1	축산	2	구제	1	식품	1	식생활	1	과학기술	2
농촌	1	경영	2	소득	1	검역	1	축산	1	시방	1	외식	1	원예	1	친환경	1
농촌	2	금융	2	농업	1	동아	1					수출	1	원예	2	종자	2
에너지	1	재해	1	간척	1							클러스터	-	위생	1	농기	1
전시	-															동물	1
체험																복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방법(측정기준)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 관련사례(우수사례, 문제점 등), 정책효과, 외부환경 변화, 갈등요인 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계획수립 여부 ○ 과제추진계획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 여부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 과제별로 성과관리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정책 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정보공유·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여부
③ 성과 달성도	3-1. 성과지표 달성도	3-1-1. 정량지표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배점부여
		3-1-2. 정성지표	○ 목표치 적극성, 달성여부 및 정책효과 정도를 확인, 5단계로 배점부여
	3-2. 정책의 효과성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④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 주기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도출·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 적시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4-2. 평가결과 환류		○ 자체적으로 과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환류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평가
⑤ 가·감점	5-1. 과제중요도		○ 과제중요도에 따라 가점 부여(3점)
	5-2. 자료제출 및 입력의 적시성		○ 제출자료 및 시스템 입력 지연시 감점부여
계	5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2. 평가결과

(1) 총 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마늘·양파 가격 폭락, 잦은 태풍 피해, 정책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성과 달성

□ '19년도 총 51개 과·팀(사업담당 과·팀 43개) 중 40개 과·팀의 5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2과제(5%), 우수 9(16%), 다소우수 7(14%), 보통 17(34%), 다소미흡 8(16%), 미흡 5(10%), 부진 2과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AI 방역관리 강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 농업정책보험 지원강화, 농산물 신유통 활성화 등 11개 과제(상위 21%)이며,
 - (우수과제)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으며, 보다 적극적·전략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과제
- 미흡 이하 과제는 참여와 협력의 소통농정 추진, FTA 국내보완 대책 추진 및 농업박람회 개최 등 7개 과제(하위 15%)인 것으로 나타남
 - (미흡과제) 실제 추진실적과 정책효과가 미흡하기 보다는 상대 평가에 따라 평가위원들의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책성과 도출에는 중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

□ 총 50개 관리과제의 15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3.4%로,

- 14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상조건, ASF 발생 대응, 경제 여건 등 외부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벼재배면적 감축률, 잡곡류 재배면적, 콘테스트 참여마을 수, 삶의질 위원회 개최 등

(2) 주요성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AI·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농산물 신유통 활성화,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등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가축질병 관리)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의 획기적 감소 및 확산 차단

- (ASF)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나, 발생 시군 모든 돼지 수매·살처분 등 유례없는 총력대응으로 확산 저지
 - * '19.9.16 최초 발생(경기파주), 민·관·군 총력대응으로 10.9일 이후 추가발생 차단
- (AI) '18.3.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며, '14년 이후 최장기간 비발생을 유지
 - * AI 발생 : ('16/'17년 동절기) 383건 → ('17/'18년 동절기) 22건 → ('18.3월~현재) 0건
- (구제역) '19.1월 안성·충주 발생 시 신속·강화된 방역조치와 민·관 협력, 가용자원 총동원으로 단기간(4일)에 마무리
 - * 구제역 발생 : ('15년) 185건 → ('16년) 21건 → ('17년) 9건 → ('18년) 2건 → ('19년) 3건

□ (신유통 활성화)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및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직매장 월평균 매출액 확대('18년 184백만원 → '19년 191백만원)
 - * 로컬푸드 직매장 : ('16) 148개소 → ('17) 188 → ('18) 229 → ('19) 250
-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지역농산물 구매비중 31% 증가), 공공기관 공급 등으로 참여농가 월평균 소득 증대(2.3만→43만)

□ (농업인 보험지원강화) 재해복구지원 단가인상, 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농가재정 부담 경감

- (재해보험) 보험 대상품목 확대(신규 5개) 등으로 가입농가 증가
 - * 대상 품목수 : ('16) 66품목 → ('17) 69품목 → ('18) 73품목 → ('19) 78품목
 - * 가입농가 수 : ('18) 277천호 → ('19) 341천호(64천호, 23.1%↑)
- (안전보험) 영세농 보험료 지원 확대(50%→70%) 및 여성·고령농 보장성 강화(골절진단비 추가)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증가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18) 63.3% → ('19) 64.8%(1.5%p↑)

(3) 개선·보완 사항

◇ 참여와 협력의 소통농정 추진, FTA 국내보완 대책 추진 및 농업박람회 개최,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등 일부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소통 농정) 정부 농정방향 및 현안에 대해 농업인 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미흡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및 농정거버넌스의 핵심인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필요(국회 계류중)
- (농업 박람회) AI로봇,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새로운 모습에 관심이 높았으나, 당초 준비에 비해 규모가 축소(1/7)되어 한계가 있었음
 - 금년 사례를 참고하여(방역, 행사결과 등) 전문가 자문, 역량있는 전시업체 발굴 등을 거쳐 내년도 박람회 추진방향을 준비
- (농촌 재생에너지) 농업인 소득증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 달성 등 농촌태양광 발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성과 제시 미흡
 - 농촌태양광 주민참여 정책연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필요
- (살처분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적 살처분 시 일부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방역취약요소 관리 및 지원 미흡
 - 폐사체 관리, 농장 차량출입관리 등 방역취약요소 관리 강화 추진
- (생활 SOC) 농촌지역 정주체계 핵심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20) 됨에 따라 농촌지역 3·6·5생활권 구축 공백 최소화 필요
 - 마을만들기 등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을 농촌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
- (농촌관광) 등급제도를 개편하였으나, 현장적용이 미흡하며 등급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이후의 관리 필요
 - 농촌관광 품질제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중간평가 시행 및 결과를 공개하고 농촌관광 경영체 교육 추진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1-1.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보통
I-1-2. 농식품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미흡
I-1-3. 농식품펀드 투자활성화	다소미흡
I-1-4.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노후생활 지원	보통
I-2-1. 농업환경 보전 및 공익적 기능 강화	보통
I-2-2.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미흡
I-2-3. 스마트 축산 확산 등 축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 강화	보통
I-2-4.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우수
I-3-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 육성	보통
I-3-2. 현장 맞춤형 R&D 강화	보통
I-3-3.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I-3-4. 곤충 및 생명산업 육성	보통
I-3-5. 농기자재산업 육성	보통
I-3-6.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미흡
I-4-1.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우수
I-4-2. 해외 농식품 산업 진출 지원	다소미흡
I-4-3. 국제농업협력(ODA) 플랫폼 확대	미흡
I-4-4. WTO 농업논의 대응	보통
II-1-1. 쌀 수급안정 도모(쌀값 안정포함)	다소우수
II-1-2. 잡곡류 생산 및 수요 기반 확충	보통
II-1-3. 간척지 활용 등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다소미흡
II-2-1. 농업정책보험 지원강화	우수
II-2-2.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다소미흡
II-2-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	우수
II-2-4.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우수
II-2-5. AI 방역관리 강화	매우우수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Ⅱ-3-1. 농산물 신유통 활성화(로컬푸드 포함)	매우우수
Ⅱ-3-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화	우수
Ⅱ-3-3. 축산물 수급안정 및 이력제 확대	보통
Ⅱ-3-4. 축산업 허가제 및 생산·유통체계 정비	보통
Ⅱ-3-5.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과일간식 포함)	다소우수
Ⅱ-3-6. 꽃 소비 생활화 확산	다소우수
Ⅱ-4-1. 직불제 내실화(공익형직불제 확대개편 포함)	다소우수
Ⅱ-4-2. 농협제도개선	다소미흡
Ⅱ-4-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및 농업박람회 개최	부진
Ⅲ-1-1. 농촌 정주여건 개선(3·6·5 생활권 구축 포함)	미흡
Ⅲ-1-2. 맞춤형 복지 강화	보통
Ⅲ-1-3. 농촌취약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다소미흡
Ⅲ-2-1. 참여와 협력의 소통농정 추진	부진
Ⅲ-2-2.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다소미흡
Ⅲ-3-1.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보통
Ⅲ-3-2. 농촌관광 활성화	보통
Ⅲ-3-3. 귀농·귀촌 활성화	다소우수
Ⅳ-1-1. 건전한 식생활 교육·체험 확산	다소우수
Ⅳ-1-2.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우수
Ⅳ-2-1.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	우수
Ⅳ-2-2.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	보통
Ⅳ-2-3. 전통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Ⅳ-3-1. 맞춤형 농식품 수출 지원	보통
Ⅳ-3-2. 전략적 검역협상	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1-1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층 농업창업 활성화)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 창업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교육을 종합 지원(4월~)
 - '19년도 선발자 중 귀농청년이 69.7%(1,115명), 영농경력 1년 이하가 88.4%(1,414명)로 청년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농고·농대교육 강화) 농고·농대생의 농산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현장실습교육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협의회 운영
 - 현장실습교육 내 장기과정 확대 및 실습장 구축 지원 사업 확대 및 농업교육포털 내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편의제공
- (인력 수급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용부담 완화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 공급 확대
 - (최저임금 대응) 농업분야 특성을 반영, 5인 미만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자 간담회 및 유관기관 등 홍보 강화
 - (계절근로자 확대) 국내 인력중개 활성화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
-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역량진단에 따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유도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행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육성과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계층마다 그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 유입·육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방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 농업교육 전후 역량 향상률을 설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평가에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외 여건 및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성과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계획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함 · 평가지표 중 역량 향상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이뤄짐. 설문 조사는 주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역량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과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을 준수하였음 · 관련 TF,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청년인력 유입 등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향후 기대 효과가 좋음 · 청년영농정착지원의 경우 미래세대의 관심과 의지를 유발, 이외 인력지원 등 정책적 필요가 큰 사항에 대처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의미 있고,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농업부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모든 세부사업별로 정책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현장과 밀접하게 심층인터뷰, 워크숍 등을 토대로 업무를 실시했는데 현장의 반영이 미흡한 편임
4. 환류 노력도	우수	· 시군별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함 · '19년도 의견수렴을 통해 '20년도 지침 개정에 반영함 ·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성실하게 환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인력 불균형 실태 개선 미흡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달성

- ◇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수 16.7% 확대 ('18년 1,912개소 '19년 2,233개소)
- ◇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보육 기업 기준) 매출액 64.5% 증가('18년 대비)

- (자금)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융자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한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교육·정보) 원스탑 정보 제공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센터 추가 개소,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등을 통한 창업가 역량 제고
- (기술) 수요자 중심 R&D 지원, 기술평가 지원 등을 통한 벤처창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
- (판로) 초기 창업 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 온라인 전용 판매관 등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 추진계획 상 1회성 행사 성격이 다소 많음
 - 3개 성과지표 중 농식품 창업생태계 조성건수*의 경우, 부서의 노력이 중요하나 다소 과정지표의 성격이 강함
- * 농식품 창업생태계 조성(건) = (Σ창업 성장연계 지원 건수×06) + (Σ창업 애로해결상담 건수×04)
- 창업기업의 창업 애로해결 및 보육을 통한 창업 성공 촉진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확인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지속성 있는 사업내용을 기반을 수립 필요
- 농식품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보완 필요
- 창업보육 등 사업추진 확대 및 내실화로 성과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이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다만 창업 관련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창업진흥원들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이 확장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음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명확함 ·과제별 추진계획의 설정 및 월별 추진일정에 대한 체계적 제시는 긍정적임 ·분기별, 월별 과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음
2. 집행의 적절성	미흡	·대학,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업무 협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좀 더 확장한다면 기업들의 창업 관련 성공·실패 등의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이 반영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음 ·1회성 행사성격보다는 집중적 관리가 요구됨 ·농식품 벤처·창업애로해소 협의회를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타 부처 산하 창업 기관과도 협업을 하고 있음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한 실적이 인정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3개의 성과 지표 중 농식품 창업생태계 조성 및 클라우드 편당 성공 기업 수는 목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나, 기술금융 창출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이 낮음 ·세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함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다양한 업무를 통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약간 미흡함 ·지원 받은 업체의 실적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계량적 성과도 긍정적이나, 이해당사자의 체감적 효과 및 창업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상위목표(청년층 영농창업자 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
4. 환류 노력도	우수	·현장모니터링 등 현장과의 의사소통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사업 운영의 개선 성과도 확인됨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도 확인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펀드결성 현황) '19년 10월 현재 61개, 총 9,911억 원(정부 5,512, 민간 4,399) 규모의 농식품펀드(자펀드)를 결성하여 4,399억원 규모 민간자금 유치
- (투자현황) 총 341개 경영체에 6,851억원 투자('19.10월말 기준)
 - * 농식품펀드는 결성 이후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므로, 결성 후 투자 진행 중인 초기 펀드가 포함된 평균 투자율은 결성액의 69% 수준
- (청산현황) '19.10월 기준 7개 펀드가 청산 완료되었고, 모두 투자 금액 대비 회수금액 비율 100%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였음
- (고용유발) '17~'18년 동안 투자를 받은 농식품경영체 중 고용변화 자료가 있는 125개 업체에서 투자 후 고용인원 461개(10%) 증가
 - * 125개 업체 투자 전 고용인원 4,580명 → 투자 후 5,041명('18.12월 기준)
- (매출증가) '17~'18년 동안 투자를 받은 농식품경영체 중 매출액 변화 자료가 있는 128개 업체에서, 투자 후 매출액 2,637억 원(22%) 증가
 - * 농식품펀드는 결성 이후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므로, 결성 후 투자 진행 중인 초기 펀드가 포함된 평균 투자율은 결성액의 69% 수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소극적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필요
- 국민체감 중심의 결과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펀드 조성 추진계획, 투자지원 추진계획, 현장 방문/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추진계획, 홍보 추진 계획 등을 적절히 수립 · 취약분야에 대한 전용펀드 조성, 신수요 대응, 조기 투자 촉진, 법령개정 착수, 컨설팅 지원 등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 국민체감 가능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요구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이 준수됨 · 협의실적,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이 우수함 · 투자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각종 설명회 및 유치활동을 활발히 수행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정량 성과지표 모두 달성하였음. · 자펀드 농식품분야 투자 실적적 지표의 목표치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극성이 낮은 편임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며, 홍보 우수 사례 등이 제시됨 · 성과에 대한 사례가 부족해 보임 ·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4. 환류 노력도	우수	·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단계별 투자역량 강화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환류 노력이 우수함 · 간담회, 협의회 등 의견수렴 수행 · 개선방안 마련 등 우수함 문제점 및 개선효과가 큰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영농정착 도모)** 농지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 및 정착 유도
 - 2030세대 지원을 시작한 '12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총 20,057명에게 1인당 평균 0.97ha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 2030세대 지원농지(인원) : ('12) 2,000 (2,126명)→('14년) 2,366ha(2,601명)→('16년) 3,105ha(2,983)→('18년) 2,445(2,866명)
- **(농지구묘화)** 6ha 미만 농가 우선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지원 비율 지속 확대
 - * ('12) 60.9% → ('14) 65.7 → (16) 74.7 → ('17) 77.6→ ('18) 80.2(추정)
- **(농업구조 개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사업 통해 고령·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에 임대함으로써 영농 연령 하향
 - * 농지매도·임차자 평균연령('18): 매도자 69세, 임차자 40세(감 29세)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청년농이외의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농지지원 정책 미흡 등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농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영농 정착 지원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이 실시되었고, 과제 추진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 청년 창업농을 우선적 지원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청년농-기존 농업인 4060 귀농인 간의 상대적 역차별에 따른 고립화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
2. 집행과정의 적절성	미흡	· 추진 일정 관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 · 협업노력이 부족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경영희생 지원 농가의 순자산증가율 및 농지연금 가입률의 목표치 설정이 보통이라고 판단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영농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발생 정도는 우수하나, 후계인력양성 및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는 보통이라는 판단 ·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4. 환류노력도	우수	· 전년 평가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개선방향 마련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산·유통기반 확충 및 친환경 소비촉진 및 가치 홍보를 통해 유기 재배면적 증가('18: 247백ha → '19: 297(전년대비 20% 증))
- (인증관리) 친환경 인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완료**('19.8월), 소비자 신뢰 향상 및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기대
- (유통)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유기데이 등 기념행사를 통한 판촉 지원 등 유통체계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 (소비)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20년 신규반영(국비 97억) 등 **공공소비시장 창출 등 소비촉진을 통해 생산확대 견인에 기여**
- (생산기반) 생산과 유통·가공·외식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19: 17개소), **직불금·자재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 지원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개인·공동 활동체계 마련,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참여주민비율 45.1%)
- 환경개선이 필요한 농촌 지역 대상 주민 스스로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19년 본 사업화, 5개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개선방안의 실효성, 정책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국민건강 비용 지출 감소의 선제적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더욱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 필요
- 소비자와 생산자, 양 정책소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으나, 유통·소비촉진 등 일부 분야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함 · ‘유기재배면적’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비율’ 지표는 성과측정에 대체로 적합하나,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과제별 추진계획이 모두 적기에 완료 되었음 ·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정책간의 협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고, 실적이 우수한 편이나, ‘유기재배면적 확대’라는 지표 달성을 위한 협업노력이 다소 미흡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유기재배면적’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비율’ 지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 · 각 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비율’ 신규지표 목표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전체적으로 잘 나타났으며, 상위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친환경농업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적 측면의 개선과 교육 후 피드백 등 효과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다양한 농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내역의 구체성이 미흡함 ·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효과는 잘 보여졌으나,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확대에 대한 효과성 내용이 누락됨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을 통한 출산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 정책의 효과성이 불분명 · 친환경농업지구 내 생산면적 비율 증가율이 미흡
4. 환류 노력도	우수	· 의견수렴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원인 분석, 개선방안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정책개선의 실효성, 소비자 파급효과 등의 기술이 미흡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의 접근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였는데, 고령농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은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농업환경보전 및 공익적기능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796호, 목표 750호 대비 106.1%),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확대, 실시간 축산냄새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양질의 퇴비·액비 자원화(부숙도 판정기 보급 및 교육) 추진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 ('17) 1,029호 → ('18) 1,814호 → ('19) 2,610호 → ('22) 5,000호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여전히 낮음
-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처리 미흡 등으로 악취 및 토양·수질오염 유발

* 가축분뇨 발생량(만톤) : ('14) 4,623 → ('16) 4,699 → ('17) 4,846 → ('18) 5,10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축분뇨 적정관리 우수사례 홍보, SNS 활용 등이 전 국민적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분뇨 처리지원 등 축산농가 스스로 인식 및 자정활동 추진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각종 관련 통계자료의 분석, 갈등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분석 등을 통해 연간계획을 수립한 점이 긍정적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농가수를 성과지표 제시하고 있는데, 과제에 따른 대표성은 인정되나, 실적지표에 가까우며 성과 지표가 아님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세부과제 14건에 대해 완료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 과제의 경우, 지연 또는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된 점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계획 및 일정관리가 필요함 · 17개 과제에 대해 협업한 실적이 확인되나, 협업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성과관리까지 확인되면 좋을 듯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단독지표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농가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우수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자원화 및 악취저감으로 지속가능 축산과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환류 노력도	미흡	· 관계기관 회의,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담당자 워크숍 등 의견수렴 노력을 기울임 · 자체평가 검토 및 지적사항,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못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 축산) ①스마트축사 956호 보급, ②스마트축산 컨설턴트 96명 양성(누계), ③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선정, ④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의 전업농 기준을 적용할 시 양돈 15백만원, 낙농 6.5백만원, 한우 비육우 1백만원, 산란계 22백만원 금전적 효과 발생

- 전국 축산농가 중 956호에 스마트축사 신규 보급 완료
- 축산 + ICT 지식을 동시에 전수해줄 수 있는 스마트축산 컨설턴트 96명 신직업군 양성(일자리 창출 과제)
-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은 최소화하고, ICT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3개소 선정
- 축산 ICT 장비에서 수집되는 사육·환경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축사 도입에 따른 생산성 및 소득증가 효과 >

주요 지표		단위	기존	개선	증감률	경제적 효과 (기준)
양돈	모돈 한 마리 당 출하두수(MSY)	두	20.8	21.16	1.73%	15백만원 ↑ (모돈 100두, 비육돈 1,000두)
	사료요구율	kg	3.22	3.19	-0.67%	
낙농	마리 당 착유량	리터/일	32.09	32.91	2.53%	130천원 ↑ (착유우 1두)
	자가노동시간	시간/일	6.78	5.78	-14.75%	
한우	폐사율 (번식농가)	%	8.58%	8.26%	-0.32%	34천원 ↑ (가임암소 1두)
	지육중량 (비육농가)	kg	441.19	442.42	0.28%	
육계	사료요구율	kg	1.49	1.47	-1.34%	12천원 ↑ (육계 1,000수)
	폐사율	%	3.04%	2.73%	-0.31%	
산란계	산란율	%	78.53%	79.11%	0.58%	748천원 ↑ (산란계 1,000수)
	폐사율	%	1.60%	1.47%	-0.13%	

* 특히, 한우농가의 자가노동시간은 18.42%(5.12시간/일 → 4.17시간/일) 절감

- (가축개량) 한우 1등급 출현율 증가, 젖소 산유량 증대, 돼지 산지수 증대를 통한 축종별 소득증대 효과 발생
- 한우 1등급 출현율 당초 계획(72.8%) 대비 초과 달성(0.9%)됨에 따라 추가소득 302억원 소득 증가(출처 : 농협 가축개량원)
 - * 1등급 출현율 1%점 증가시 농가수익 : 302억원 = 1%/년 * 9,249원(1등급이상과 이하간 경락단가 편차)/kg * 804,181두(최근 5년간 평균 도축두수) * 406kg(평균도체중)
- 젖소 검정농가 산유량 실적 9,325kg 달성으로 일반농가 대비 1,467억원 소득증대 효과(출처 : 농협 가축개량원)
 - * 평균유대 1,079원 * 907kg(검정농가 9,325kg - 일반농가 8,418kg) * 149,869두(검정두수평정) = 1,467억원
 - ※ 평균유대는 '19.10월 평균, 검정농가 실적은 1산차 산유량, 일반농가 실적은 '18년 전차수 평균 실적을 적용함
- 돼지 산지수는 '18년 대비 0.2두 증가로 국내 모돈두수 975,842두 * 22천원* = 21,468,524천원 순익 발생 기대(출처 : 한국종축개량협회)
 - * '18년 통계청기준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8,400원 X 0.2두 X 2.3회전 = 22,264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관련사례, 갈등 요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관련기관 협업 노력에 따른 실적 미비
- 실적 증가폭에 비해 낮은 목표치 설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계획마련 필요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협의성과 도출 필요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상향조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 과제추진 계획이 적절하며 이행결과물이 명확히 제시됨 · 관련 통계현황, 갈등 요인 등의 구체적 제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미흡	· 관련 기관 협업 계획은 잘 구성되어 있음 · 협의 성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종축개량 지표는 결과지표로서 적절함 · 컨설턴트 수 양성은 결과지표(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스마트축사 도입과 가축개량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투입비용에 대한 언급 필요가 있음
4. 환류 노력도	우수	· 관련 분야 다수 이해당사자와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소통하고 있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동물보호 홍보캠페인을 통해 신규 동물등록이 전년(147천마리) 대비 488% 증가한 720천마리 신규 등록('19.10월)
- 동물등록 월령 조정(현행 3개월 → 2개월), 외출 시 목줄 길이 제한(2m 이내) 근거 마련
- 차년도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지원 전년대비 125% 확대
* ('19년 지원 대상 지자체) 4개소 → ('20년 지원 대상) 9개소
-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한국형 동물복지 기준 확정 및 제도화
-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기본안('17.12월),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18년 700개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기준 확정('19.6월) 및 제도화 추진('19.12월 관계법령 개정, '20년 시행)
- 동물복지 주요정책 방향 우선 수립(6월)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여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 67개 기관 70명이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 T/F 운영 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에게 관심이 높은 반려견 문제에 대한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과 제도개선을 실천하여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기동물 발생 증가 등 동물복지 환경여건 변화의 적극적 분석·반영이 요구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소 확대가 필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TF구성 및 국회, 동물복지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등 과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갈등 관리계획도 잘 수립함 ·성과지표가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수립전이므로 미완으로 판정 ·종합계획 TF등 협업체계 구축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2개의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이 있고, 목표를 달성했으며, 정책효과도 보통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 가치 가점 있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났음. 특히 목줄, 가슴줄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동물등록 폭발적 증가 ·축산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등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4. 환류 노력도	우수	·토론회, 포럼, 대국민 조사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 수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추진 및 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도출과 원인분석, 해결방법이 우수함. 특히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조사문항 추가 등 개선안 자체가 우수 ·지적사항에 관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 조성 추진(~’22년 4개소*)
 - * 4개소 : 1차 선정지(전북 김제, 경북 상주), 2차 선정지(전남 고흥, 경남 밀양)
-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성장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보육센터 교육운영(’19.9~,’104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 기자재 기업 등의 실증연구 지원 공간 마련(’19.12. 경북 착공), 단기체감 서비스개발(딸기 설향), 기자재의 국가표준 제정 추진(축산 19종)
- 시설원예·축산 중심의 스마트팜 보급과 함께, 노지 스마트팜(’19년 30억원, 12개 모델 발굴), 수직형 농장(’20년 부·청공동 73억원) 등 유형 다양화
- 스마트팜 우수사례 발굴·홍보, 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현장컨설팅·A/S 지원 등 현장지원체계 강화(연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와 연계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스마트 농업 육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마트 농업이라는 과제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 농업의 육성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환경 여건변화, 관련 통계 현황 등이 제시되어 있고 과제추진 계획의 이행 결과물이 구체적임 · 농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하였으며,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 ·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와 연계적이지 못하고 결과지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정부계획에 스마트팜이 포함되어 있음 · 부내 다양한 과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협의체계 구축되어 있지만, 과제발굴 및 실적이 미흡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3개년 평균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치는 보통의 적극성을 가짐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생태계조성,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효과는 사업초기여서 구체적 효과 제시가 어려우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상위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4. 환류 노력도	보통	· 설명회, 정책콘서트, 협의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혁신밸리간 차별성 강화는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주요 R&D사업의 일몰·종료에 대응하여 중·장기 및 단기 신규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추진하여 농림식품 R&D 확대 추진
- 현장 중심의 과제 기획, 공정·투명한 평가·관리를 통해 농림식품 R&D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

○ **【농식품 R&D 경쟁력 제고】**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화 및 ICT·무인화 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 추진

○ **【농림식품 R&D 거버넌스 고도화】**

- R&D 정책 수립, 신규 사업 기획 시 심의 강화 등 농과위 정책 조정·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 활성화로 네트워크 확산

○ **【신속한 R&D 성과 현장 보급 및 확산 채널 다양화】**

- 기 축적 SNS 컨설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컨설팅 지원 내실화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소극적임
-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행사중심보다는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필요
- 행사중심보다는 정책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과제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함 ·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 반영하여 충실히 수립되었으며, 목표치 및 대표성, 적절성 또한 우수하며, 목표치 또한 초과 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이 적절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11개의 세부과제 집행을 전부 완료 · 관련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 및 협업과제를 발굴 실적 우수 · 추진실적 및 성과도 우수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계획대비 목표치보다 120% 초과 달성하였으나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소극적임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3차 종합계획은 대외여건 반영, 전문가 검토 등 체계적인 접근을 거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수립 · SNS컨설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현장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회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 맞춤형 R&D 확산을 위해 크게 기여 *회원수/누적컨설팅 수가 ('18) 47,106명/ 64,970건 대비 ('19.10) 55,201명/ 86,391건으로 크게 증가 · 역매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참여한 생산자단체의 우수한 연구성과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매출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함
4. 환류 노력도	보통	· 전년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시 평가위원의 단순지표 지적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 노력을 함 ⇒ SNS 컨설팅 수 및 만족도/ R&D 코디네이터 컨설팅 수 및 만족도를 복합 지표로 설정하여 농업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및 연구역량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 연계를 강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종자 수출확대 등) 수출산업화 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종자수출 44백만 달러, 국내매출 188억원 등 지속 증가

* 수출액(만달러) : '13) 71→'14) 643→'15) 995→'16) 1,348→'17) 2,447→'18)3,873→'19.10월) 4,369

* 매출액(백만원) : '13) 294→'14) 3,104→'15) 7,738→'16) 8,186→'17) 12,825→'18) 21,524 →'19.10월) 18,803

-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국내 종자기업의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10.16~18, 전북 김제)

* 관람객 32천명, 참가기업(기관) 81개, 수출계약 약 43억원, 학술행사 7회 등

** K-Seed 서포터즈 : 농생명마이스터고 종자산업과 학생으로 구성(3월 출범), 현장견학·실습(4~5월), 박람회 전시포 조성(6~9월), 박람회 참가(10월) 등의 연중 활동

- (로열티 감소)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의 품종 육성과 보급 확대를 통해 국산품종의 점유율 향상, 로열티 지불액 감소 효과 발생

* 국산품종 점유율 확대(로열티 대응 12개 품목) : ('16)24.0%→('17)25.1→('18)26.2→('19)26.4(↑0.2%)

** 로열티 지불액(억원) 감소 : ('16)118→('17)104→('18)110→('19P)107(↓3억원, △2.7%)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에 있어 외부환경 변화, 관련통계,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지표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이 요구됨
 - 분기별 추진계획의 이행 결과물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종자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SP사업으로 개발된 품종의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 방안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종자산업경쟁력강화 평가에 대한 환류 및 관리 계획 수립(1월)
 -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품목별·국가별 수출전략 방안 마련(3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출지원에 대한 계획이 적절함 ·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은 보통으로 판단(2억불 수출 달성이 국민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 · 분기별 추진계획의 이행 결과물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추진 일정을 잘 준수하여 계획 대비 대부분 완료 · GSP 수출지원협의회,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에 충실 ·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종자산업기반구축 현장점검은 미완으로 판정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특허와 품종등록 수는 지표로 적절하며 수출액 증가는 괄목할만한 성과임 · 실적 평균이 불가능한 사업은 적극성이 부족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품종개발 활성화, 종자 수출 및 자급률 향상 등 정책 효과가 우수함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등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육성에 직간접적 기여함 · 수출액 달성 2억불을 21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예상했던 정책 효과성은 보통 · 수입대체 전략형 종자 개발에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음
4. 환류 노력도	우수	· 민간전문가, 협회 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책을 잘 마련함 · 과수묘목 선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남 · 종자수출 방안 마련 및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필요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수출지원협의회 재구성이 우수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R&D 추진계획이 GSP 2단계 3년차 시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제 대응) 국제회의 참석, 국·내외 동향 분석 등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8차 총회에 참석(11.11~16, 로마) 하여 유전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체제 강화 발전방안 논의
- (생명산업 육성) R&D, 인프라, 제도개선, 기업지원 등 다각적 정책 추진
 - 생명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유용미생물은행 및 미생물제형화장비 구축 등) 및 관련 기업 산업화 지원(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 산업화 성과 41건) 추진
 - 지속가능한 농업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9. 예타 신청, '19.9 기술성평가 통과, '19.10~ 본예타 대응)
- (곤충산업 제도개선) 축산법에 따른 가축 범위에 곤충을 추가하고,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 및 비료·사료분야 규제 완화로 관련 분야 곤충 활용성 제고
 - * 축산법 위임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하여 곤충 14종 추가('19.7.25)
 - * 사료용 곤충의 사육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곤충 사육기준」 고시 개정('19.10.25) 등
- (곤충산업 지원) 생산기반 구축, 곤충 가치 인식 개선 홍보와 소통 강화 및 곤충·양잠 관련 통계 제공으로 곤충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에 기여
 - 곤충 종자 증식·보급 및 질병관리시스템을 위한 “곤충종자보급센터” 완공(7.31)
 - 사료용곤충 생산 법안·농가 협력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료용곤충산업화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3개년 평균 달성도 계산이 불가하여 적극성이 다소 부족
- 곤충식품 매출액(상위 10개 업체) 지표의 경우 정책목표를 대표하기 부족하고, 신규 곤충 사육농가 수 지표는 '18년 실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반영하여 과도한 목표치 설정
 - * '18년 실적 오류 정비하여 '19년 목표 교정시 '19년 실적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및 적극적 목표 설정
- 과제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는 개선 또는 삭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음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한 추진 계획 수립과 분기별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했음 · 식용곤충가공업체의 매출액 지표는 정책목표 대비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임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일정을 잘 준수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충실하였음 ·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협업과제 발굴 이행 우수함 · 과제 추진 일정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4개 성과지표 모두 3개년 평균 달성도 계산이 불가하여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곤충산업 저변확대를 이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하며,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자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며,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인 상위목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함 · 지속가능 농산업,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의 상위목표연계가 다소 부족함
4. 환류 노력도	보통	·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은 적정하나, 정책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보통 수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수요 증가를 통해 농기계산업 육성

* 농기계 임대사업소(누계) : ('17) 443개소 → ('18) 469 → ('19) 499

** 발농업 기계화율 : ('13) 55.7 → ('15) 56.3 → ('17) 58.3 → ('19) 60.2

- (농약)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19.7월)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제고

*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 의무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정보관리

** 농산물 부적합률(건수) : ('18.10월) 1.5%(1,154건) → ('19.10월) 1.3(1,037)

- (비료) 부적합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 차단 등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및 친환경 비료 지속 지원 등을 통한 비료산업 육성

* ('19) 유기질비료 268만톤/1,341억원, 토양개량제 440천톤/528억원 지원

** 비료관리법 개정(11.27, 법사위 통과)하여 농관원 조직(117개 사무소)을 비료 품질검사에 활용

- (수출) 농기자재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지원

* 농기계 수출실적 : ('18) 10.4억불 → ('19.p) 11.2억불(전년 대비 7.7% ↑)

** 농약 수출실적 : ('18) 137백만불 → ('19.p) 165백만불(전년 대비 20.4%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업 내용의 특성 상 시행계획 상위 목표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본 과제의 상위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차세대 첨단 농기계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농촌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시행계획 상 추진계획이 일정 내 완료됨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시행 대비 T/F 및 중앙면세유 관리위원회 등을 구축·운영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이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시행계획상에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성과 지표는 정량적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정성적 지표로 판단됨 · 농기자재 수출전략정보 제공수 관련 성과지표는 3개년 평균 달성도 계산이 불가능 해 적극성 판단이 어려움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농기계산업 규모 확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비료 품질 신뢰도 향상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남. · 성과 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차세대 첨단 농기계개발 지원 부족
4. 환류 노력도	우수	· 지난 평가에서 제기된 농기자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 시장의 협소함을 감안한 수출 활성화 노력, 비료·농약 할당관세 1% 인하 등 정책환류 노력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마을단위)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 * 보성농협 조합원(5명), 준조합원(1명)으로 구성, 협동조합 설립(10.15)
- (수상태양광) 외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현실화 및 농업인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 사업계획 보완·조정 : 2022년까지 4,280MW → 422MW 추진('19.6.)
-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정비
 -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 마련, 산업부 시범사업 지침 보완, 확대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재배모델 실증지원 예산(525백만원) 확보 등
- (제도정비) 농업인 태양광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우선구매,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등 근거 마련(국회 법안소위 계류)
- (콜센터) 농업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농어촌공사 내 상담 콜센터 운영(7.2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업인 소득증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 달성 등 농촌태양광 발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성과 제시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 도출을 위하여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확산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수, 발전규모 등을 고려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통계현황, 여건분석은 우수하나 정책효과 분석 필요 · 과제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나 분기별(월별) 과제추진계획은 보통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지자체, 농진청, 농협중앙회 등 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 · 현장 방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현장방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논의 결과를 입법화, 계획수립 등에 반영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달성도 모두 무난함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마을조합 참여자수나 발전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농가소득 증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목표 달성율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은 확인되지 않음 · 기술융복합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상위목표 달성의 정량적 성과 기여 정도가 낮음
4. 환류 노력도	미흡	·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회의 등 행사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소비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FTA 타결) 2019년 타결한 FTA에서 우리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한-인니 FTA)하고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증대에 대비한 안전장치(ASG, TRQ) 마련(한-영 FTA)
- (한-인니 FTA) 쌀·고추·마늘 등 국내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산물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 수준을 높임
- (한-영국 FTA) 영측과 기존의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한-뉴질랜드 FTA 농수산물협력사업 연장) '20년 이후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협력위원회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양국이 지속 추진 합의(연장 이행약정 체결 예정)
- (현황) 한-뉴 FTA 발효('15.12.) 이후 '16년부터 양국 농어촌 중고생 어학연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인적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 증진 (다만, 뉴측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20년부터 사업 종료 계획)
- (성과) 지난 4년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중고생(599명) 및 예비 청년농업인(170명) 등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 및 선진 농업기술 역량 강화 지원
- * FTA 협력사업 관련 공동 워크숍(2.14~15.) : 향후 협력사업 방향 논의
- * 제3차 농수산물협력위원회(3.19) : 사업 지속 합의
- * 제3차 상품위(7.18), 제4차 공동위(11.7) : 구체적 사업 비공식 협의

- (의미) 한-뉴 FTA 농수산물협력사업을 통하여 인적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증진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양국간 우호협력 및 우리 농어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 (FTA 협상지원시스템 구축) FTA 협상 관련 산재된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관리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협상 대응
- (구축배경) 양자·다자간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도 기존의 협상 자료와 방대한 통계 정보가 산재해 효율적 대응에 어려움
- (주요내용) ① FTA 관련 통계·정보(교역, 관세, 수급 등) DB화, ② FTA 협상 단계별 지식(노하우, 의사결정 근거 등) DB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지표가 산출 및 과정 중심적이며, 결과지표의 성격이 약함
- 2019년 평가지표 : ① FTA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 실적(회), ② FTA별 공식·비공식 협의 실적(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에 적절한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KREI 등) 자문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영향분석 및 환경여건 반영 우수하고, 과제추진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음 - 농업분야 대응전략 수립의 면밀한 분석, 메가 FTA로의 전환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FTA 추진시 예상되는 농산물 피해액, 민감 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해외 및 국내 언론 동향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수립이 잘 구축됨 - FTA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 위원회로 하여금 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대부분의 추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일정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음 - 부처 내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조율 및 역할분담, 협업과제 발굴 등이 효과적임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SPS 관련부처 간 협업, FTA 협상지원시스템, FTA 세미나 등을 통해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FTA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견수렴 실적(회), FTA별 공식·비공식 협의 실적(회) 성과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FTA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피해분석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의 압력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협력사업의 소통채널의 역할 수행하여,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 FTA 협상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환류 노력도	우수	- 농업분야 협상의 대응을 위한 품목전문 자료 준비가 철저함 - 농정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전년도 주요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은 잘 되었으나, FTA협상대응과 관련된 결과지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주요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사례, 통계 등에 대한 기초분석이 되어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함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측정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어 우수한 지표로 판단
- (집행의 적절성) 과제별 추진계획서 상의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음, 관련 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이 잘 되어있음
- (성과 달성도) 성과 목표는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실적은 117%로 우수하게 나타남)
- (정책의 효과성) 농산업 해외진출 증가 등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는 탁월한 수준으로 판단, 계획수립 시 설정한 성과가 잘 나타나며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 (환류 노력도) 기업간담회 등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분석으로 개선방안 마련, 전년도 평가의 검토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의 적절성) 분석 방법 및 분석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모호, 실제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및 활동기업이 국내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 필요

- (집행의 적절성) 협업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성과 연관도가 낮음
- (성과 달성도) 1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 목표치는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치와 유사하여 보통으로 판단
- (정책의 효과성) 현실적 한계 인정되나 지금보다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강화 필요
- (환류 노력도) 활동기업수 증가에 따른 현장점검의 추가 수행 요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수립의 적절성) SWOT 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마련
- (협업성과 발굴) 구축된 협의체계를 활용하여 실제 전체 정책 목표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협업성과 발굴
- (성과지표 개선) 실제 해외진출기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검토
- (현장지원 확대) 진출기업 증가에 따라 현장점검 추가수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대내외 여건 분석 및 해외농업개발 사례, 통계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 · 분석 방법 및 분석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모호 ·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으며, 측정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어 우수한 지표로 판단 · 실제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및 활동기업이 국내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과제 추진 계획서 상의 일정에 맞게 추진되었음 · 관련 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은 잘 되어 있음 · 협업 기관 선정 및 협의 내용이 실제 전체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호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성과 목표는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실적은 117%로 우수하게 나타남) · 1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농산업 해외진출 증가 등의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며, 상위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가 잘 나타남 · 정책 효과는 탁월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상위 목표 달성 기여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보통으로 판단 · 현실적 한계 인정되나 지금보다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강화 필요
4. 환류 노력도	미흡	· 전년도 평가의 검토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TF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마련·실행 · 활동기업수 증가에 따른 현장점검의 추가 수행 요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쌀을 활용한 지속적인 식량원조 성과 창출(5만톤 지원, 990만명 수혜)
 - 대규모 식량원조 실시를 통해 수원국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량원조협약 지속적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 분쟁·가뭄 등으로 원조가 필요한 예멘 등 4개국에 우리쌀 지원을 통해 990만명의 수혜자 창출
 - 국내산 쌀 5만톤 원조 실시로 국내 쌀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
- 농업 ODA의 질적 및 양적 성장(중복 최소화, 예산 3배 증가)
 -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된 지속적인 ODA 지원으로 예산 3배 확대
 - * 17년: 173억원 → '18: 651 → '19: 664 ('17년 대비 388% 증가)
 - 농진청 및 KOICA와 사업 융합·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유사·중복을 막고 예산절감의 시너지효과 창출
 - * '18년: 6개 → '19년: 13개
- ODA 사업발굴 플랫폼 확대(신남방·신북방국가 및 주요국제기구와의 협력정책)
 -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대규모 농업 ODA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자성 양자사업 대거 발굴
 - * FAO, IFAD, WFP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여(8개 국제기구 수장 참석) 하여 21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중 7개의 우수사업이 발굴됨
 - 아시아중점협력 7개국 중심의 ODA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ODA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한 양자사업 발굴
 -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중점협력 7개국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 하여 총 12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중 6개의 우수사업이 발굴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중 1개 지표(수혜자만족도) 달성여부가 제시되지 않음
- 현재 성과지표가 '당해연도 종료사업의 총수혜자수'로 되어있음
 - '주민소득의 향상', '작물 생산성증대' 등 직접적 성과가 도출되는 지표로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흡으로 분석된 '수혜자 만족도'는 1차 평가 이후 자료 보완되어 제출완료
 - 만족도 측정결과 평균 84.2점(목표치 70점 대비 120.2% 달성)
- '20년 이후 성과지표 설정 시 수혜지역과 인근 비수혜지역의 소득비교 실시'
 - 수혜지역내 농가의 작물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향상을 사업전후로 비교
 - * 사업추진전 기초선 조사와 사업종료후 종료선 조사 실시
 - 수혜지역과 인근 비수혜지역간 소득 비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SWOT 분석 등, 대내외 여건 파악과 함께 다양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 자료 분석 및 이를 수정 보완하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 식량원조와 농업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정책 간 연관성 발굴이 필요함 · ODA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 수혜자의 수 보다는 거시적 지표의 발굴이 필요함(예, 작물 생산성 향상, 주민 소득 향상 등)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18건 중 14건 완수, 4건 거의 완수로 인정됨 · 농진청, KOICA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계 구축 인정되나, 추진실적이 대체적으로 과제발굴에 머무르고 있음 · 매년 협업과제 추진실적이 향상됨, 단 타부처와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많이 발굴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2개 지표 중 수혜자 만족도는 미측정으로 해당 성과 지표는 0점 처리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상위목표인 수원국 농가소득 향상, 국내 쌀수급 안정 및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 · 기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였음.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의 파악이 어려움 · 유관사업과의 연계추진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4.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 실시와 개선방안 마련이 인정되나, 해결방안이 모색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정책 수요자인 개발도상국 정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수행하고 수원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함 · 워크숍, 포럼,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비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 제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WTO 쌀 관세화 검증종료

- 지난 20년('05~'14)간의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쌀 관세율 513% 등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14.9.30)
-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검증협의 진행*

* WTO 규정상 자국의 관세 등 양허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철회되어야 양허수정이 확정됨

- 우리나라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513% 관세율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검증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검증 5년차인 2019년에 상대국과 **이의철회를 합의**하는데 성공하고 쌀 관세율 513% 확보를 달성함

○ 개도국 이슈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

-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였고, '20년도 예산안에 개도국 이슈에 따른 소비기반 확대 등 정책 다수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결과지표의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며, 성과목표는 120% 달성되었으나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특성상 결과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나, 적절한 성과지표 발굴 필요
- 환류 노력(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위한 보고서 내용이 부족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여건, 사례분석 등 쌀관세화 검증을 위한 사전 분석, 정보 집계와 자문회의 등 사전 준비가 잘 이루어졌음 · WTO 농업논의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용은 부족함 · 추진계획이 어떤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개괄적 내용 수록이 필요함 · 과제의 특성상 결과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의 지표는 과제의 성과를 대표하는 결과지표라고 하기 어려움. 결과지표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협의실적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타기관과의 협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목표 달성도는 120% 이상 초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임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오랜 기간 지속된 검증협상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지켜낸 것은 성공적인 협상결과라고 평가함 · 다만 개도국 문제 대응 후속 조치는 충분한 국민 이해제고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
4. 환류 노력도	보통	· 관세화 관련 설명, 개도국 논의 등의 실적이 있음 · 관세율 유지와 농업보조금 확보 등 대책이 제시되고, 가짜뉴스에 적극적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진 과정의 협의, 국회, 언론 대응 등으로 추진에 대한 적극적 반영과 소통은 부족함 ·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미비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적정생산)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33,345ha로, 쌀 생산량 약 17.7만톤 수준의 사전적 감축효과 달성으로 쌀값 안정유지, 재고보관비 등 재정절감(약 3천7백억)에 기여
 - * 수확기쌀값(원/80kg) : ('16) 129,807 → ('17) 153,213 → ('18) 193,568 → ('19) 189,964
- (재고감축) 복지용·가공용 판매확대 등 수급상황에 맞는 정부양곡 공급에 따른 재고감축으로 쌀 수급안정에 기여
 - 수입산 대체 원료로 주정용 공급 추진('18: 150천톤 → '19p: 171),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가공용 공급 확대(280 → 300)
 -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량은 87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57만톤 감축(39.3%↓), '14년 이후 5년 만에 적정 재고수준 달성
 - * FAO 권고 적정 재고량은 국내수요량의 약 17~18% 수준으로 약 80만톤
- (정부양곡 관리) 비상시 활용 목적의 최소한의 관리에서 벗어나,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양곡의 품질 고급화 추진
 - 국방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군 급식으로 친환경 쌀 2,315톤 공급
 - 소비자 눈높이 충족,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등을 위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추진하여 쌀 품질 고급화 선도
- (품종검정)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 도입·시행에 따라 매입대상 품종 외 혼입 방지 효과로 고품질 쌀 생산·유통 제고에 기여
 - 공공비축 참여농가 중 8,454농가(표본추출 5%)를 대상으로 품종검정 추진 결과 7,179농가(85%) 매입 대상 품종과 일치함을 확인
- (해외원조) 아프리카 및 아시아 6개국 난민, 이재민 등에 쌀 51,000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급 개선 기여 및 국격 제고

- * 쌀 5만톤 원조는 농지 1만ha 휴경 효과
- WFP를 통해 예멘 19천톤, 에티오피아 16천톤, 케냐 10천톤 및 우간다 5천톤 지원('19.5월 출항, 6월 현지 도착)
- 애프터(APTERR)를 통해 미얀마 500톤, 라오스 500톤을 현지 재해대비용으로 지원('19.3월 출항, 4월부터 현지 보관)
- (쌀소비 확대) 세대별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쌀에 대한 긍정인식 제고를 통한 실질 구매 유도 촉진하여 가공용 쌀 포함한 쌀 소비량 증가
- * 쌀 소비량: ('14) 70.3kg(밥쌀용 65.1, 가공용 8.9)→ ('17) 71.3(61.8, 9.5)→ ('18) 72(61.0, 11.0)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8: 27만명 → '19: 34), 초등학생 대상 '식습관 교육'('118천명) 지원 및 아침간편식 제공(신규, 2,230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 시,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및 열악한 타작물 생산기반 등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목표했던 감축면적을 달성하지 못함
- * 산지 쌀값 : ('18.2) 161,792원/80kg → ('19.2) 193,052(19.3%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 하에서 장기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중요하며, 시장개방 확대로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
- 국산 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 소비를 촉진하여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하며, 쌀 소비 감소율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현장의 구체 상황, 건의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전년 실적 고려하여 생산조정제 단가 개편 등 계획 수립의 우수성이 인정되며, 계획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추진계획 수립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 생산조정 관련 재배면적 감축률은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며, 판매량과, 원조량, 재배면적 외에도 소비(수요) 측면의 지표도 함께 고려될 필요하다고 판단(가령, 식용과 가공을 포함한 1인당 쌀 소비량)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 일정은 충실하게 관리되었고, 계획대비 적기에 완료하여 제시한 17건을 모두 달성하였음 - 군 친환경쌀공급, 모니터링 및 생산조정제 실적관리, 품종검정 등 전 부문에서 협의를 적극 진행했고, 관련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판단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정부양곡 판매량, 쌀해외원조 실시, 공공비축 매입 품종 일치율은 모두 달성 -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으나 벼재배면적 감축률이 미흡하며, 정부가 벼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면적 감축과 가격안정 등 중요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외 가공산업 활성화와 원조물량 포장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농가소득안정, 식량수급안정 등 상위목표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재고 감소 및 해외 원조 등에 대한 정책 효과가 우수했다고 인정되며, 식생활과 관련하여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 단, 장기추세인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4. 환류 노력도	우수	-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쌀 수급안정협의회 등 협의, 의견수렴 실적이 우수함 - 포장재개선, 타작물 사업 보완대책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완대책을 시행, 추진 성과를 도출하였음 - 전년평가, 외부평가 관련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배면적 확대) 논타작물재배 및 단지화 지원, 적극적인 수급 안정 정책 추진, 소비촉진 사업 등으로 '15년 이후 지속 감소 하던 잡곡류 재배면적이 2년 연속 증가
 - * 잡곡류 재배면적: ('15) 197천ha→ ('16) 182→ ('17) 177→ ('18) 187→ ('19) 194
- (논타작물 단지화) 기존 들녘경영체사업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밭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 * 논 타작물 재배단지 목표 : ('19) 9개소 → ('22) 400
- (논타작물재배지원) 쌀 생산조정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급과잉 기조를 선제적으로 조절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
- (감자 가격안정) '17~'18년 이례적인 가격 폭등 사례에 대비한 적극적인 수급안정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가격 형성 및 유지
- (잡곡소비촉진) 국산 잡곡 체험 및 TV·유튜브 등 매체활용, 국민 디자인단 활동* 등으로 잡곡류 소비활성화 추진
 - * 국민디자인단 과제(우리곡물, 어디까지 사봤니)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밭 식량작물은 소규모·분산화 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환경 및 산지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장기간 기반조성·지원 필요
- 잡곡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비촉진 정책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량수요처 확보 등 품목별 소비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마련으로 수급안정 도모
-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규모화·집단화 된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국내 농가 생산품 다변화를 통한 소득 증대 계획을 다각도에서 충실히 수립 · 잡곡류 생산기반의 대표 지표인 면적 확대를 설정하고 있고, 수입물량 감축을 통한 대체 수입효과를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측정 자료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높이 평가함 · 관련 통계현황, 관련사례(TV 프로그램), 외부환경 변화, 정책 효과 등에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짐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일정을 잘 준수하였으며, 관계 기관 협업에 충실 · 13건의 추진일정 중 13건 완료, 1개 일부완수 · 농친청, KREI,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 구축, 국민디자인단, 쌀 생산 조정T/F, 국방부와와의 협업 실적이 있으며 추진실적 등의 내용이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 잡곡류 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식량수급의 안정성 확보 달성, 적극성은 높은 목표치이나 잡곡류 재배면적은 목표치에 미달 · 2개 지표의 성과를 거의 달성. 잡곡류 재배면적은 일부 미달성했으나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도출하였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한 효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잡곡 소비를 적절히 홍보 ·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발식량작물 자립기반 확대, 수입의존도 완화, 발작물 재배농가 소득 보전 등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논콩 외에 타 작물에 대한 소득 증가 등의 정책효과가 실현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이라는 전략목표와 수급균형 도모라는 성과목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잡곡류 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식량수급의 안정성 확보 달성
4.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환류 노력이 우수 · 검토 지적 사항이 충실히 반영됨 · 전년평가, 외부평가 관련 단지화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간척농지에 수도작 외 타작물 재배 확대 등 활용도 제고를 통해 쌀 수급여건 개선 및 식량자급도 증진에 기여
 - 기존 간척지는 수도작 재배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수도작 외 다양한 작물재배기반 조성 및 타작물재배 유도 등을 통해 쌀 생산 과잉 등 국내 쌀 수급여건 개선에 기여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타작물 재배 유도로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척농지 임대 시 타작물 재배 20%이상 의무화 및 임대기간 연장(3→5년) 등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추진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19.8)’에 따라 간척지의 다각적인 활용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계획적인 토지의 이용 미 관리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
 - 쌀 위주에서 농식품 산업으로 다양화하여 토지이용 범위 확대
 - 유사업종의 집중화·규모화, 비용부담 절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식품산업 특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
- 대규모농업개발, 새만금지구사업을 통한 대단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우량농지 조성을 통해 농촌인력의 축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구축,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방조제 축조 등으로 조성된 담수호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대응 능력강화 및 영농편의 도모

- 배수개선, 치수능력 확대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영농에 기여
 - 최근 5개년 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된 시·도의 농경지 침수피해 행정조사 결과 사업 완료지역(12개 시·도)에서 피해 미발생
 - 배수개선 사업을 통해 논에서도 다양한 발작물 재배가 가능
 - 최근 지구 온난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강우에 대비 대형 저수지·방조제 시설 보강으로 기존 시설물 능력(홍수량 배제)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시에도 재해예방 가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통계 및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가치 증진에 대해서는 미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도출되는 개선방안의 효과가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 수립 시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 현장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적극적인 개선방안의 도출 및 효과 향상 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통계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이 생략됨 ·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서 적절하나, 목표가 복잡이어서 추진과제 정비가 요망되며, 지표의 측정가능성 부분이 미흡함 · 사회적 가치 증진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과제 26건 중 25건은 달성하였고,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추진예정(12월계획)인 1건은 미완수로 판단 * 해당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12월 중 완료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5개 지표 모두 성과치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이 보통 수준임 ·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은 사회적 가치로 보기 어려움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 간척지 활용 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간척지 이용 확대 및 생산기반정비의 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식량수급의 안정성 확보라는 상위목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
4. 환류 노력도	보통	· 워크숍,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적은 있으나, 도출된 개선방안의 우수성이 보통 수준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상품개선)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
 - 지역간 요율격차 및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품목 추가**
 - * 보험료율 상한선 품목 : ('18) 사과, 배, 벼 → ('19) 단감, 뽕은감 추가
 - 방풍망, 관수시설 등 **방재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험료 할인**
 - * ('18) 고추, 마늘, 양파, 가을감자, 브로콜리, 인삼 → ('19) 콩, 양배추, 봄감자, 참다래 추가
 - 과수 일소피해 등 특약의 주계약 전환, 논콩 보장수준 확대(밭콩의 1.1배 수확량 인정), 벼 병충해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추가 등 **보장강화**
- (가입률 제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
 - 농업정책보험 가입농가수와 가입면적 증가로 재해대응력 강화
 - * 농작물 : ('18) 277천 농가, 378천ha → ('19) 341천 농가, 457천ha
 - * 가축 : ('18) 19천 농가 → ('19) 21천 농가
 - * 농업인 : ('18) 807천 농가 → ('19) 845천 농가
 - 태풍·폭염·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를 입은 16만 농가에게 9천억원 보험금 지급으로 경영안정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부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낮음
- 가축재해보험의 성과지표가 한계점에 도달해 현재 지표로는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 어려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 가입정체가 예상되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내실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대내외적 여건분석이 적절하며 계획수립이 충실함 · 보험제도와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정책대상집단과 협업부서 그리고 환경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과 대표성에 적절하다고 인정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농금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등 협의체제 인정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업무로 간주할 부분이 많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지표의 목표치 설정 적극성이 낮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가 한계점에 도달해 현재 지표로는 적극성이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 어려움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정책효과 발생정도는 우수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 역할에 대해서는 기여정도가 인정됨 · 정책 효과 측면에서 가입률과 보험금 지급 내용은 우수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보험가입률의 향상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지만,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큰 문제도 있음 · 보험가입률과 가입면적 등의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경제활력 창출에 기여한 점도 부분적으로 인정됨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남
4. 환류 노력도	우수	· 만족도 조사, 설명회 등을 통한 현장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의견수렴 다양성 인정되고 개선방안 마련이 인정되나, 개선방안의 구체성과 정책효과성에 다소 의문시됨 · 만족도 조사와 전년도 평가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홍수·가뭄 등 재난상황에도 체계적 시설 관리를 통한 시설 피해 방지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피해 최소화

○ (안전관리)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 체계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추진을 통해 시설 붕괴·누수 등 피해 예방

* 30년 이상 경과 시설 비율(%) : 저수지 96%, 취입보 89%, 양·배수장 45%

-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D등급(미흡)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하여 D등급 시설 지속 감소

* D등급 시설(개소) : ('15)1,535→('17)854→('19)775

- 이상징후시,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합동 긴급현장점검 추진 등 초동 대응으로 피해 방지

○ (용수공급) 평년 대비 적은 강우*에도 가뭄 피해 ZERO 달성

* 평년 대비 강우량(%) : 전국 90.6, 인천 74.5, 경기 71.2, 강원 78.0, 충남 71.2

- 영농기 전 물부족 우려 27개 저수지 8,752천톤 양수저류 등 사전 대응

- 영농기 강우부족 등 중부지방 물부족 우려지역 중심으로 용수 공급 시설 설치, 장비 구입 등 긴급급수대책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의 적절성 및 환류노력도 등에 비해 성과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성과지표 중 수리안전답률 성과가 B등급, 수리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실적치 제시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쌀 소비 감소 및 밭작물 비중 증가를 고려, 밭 생산기반 고도화 노력을 강화 할 필요

○ 과학적 물 관리를 통한 물 공급 서비스 제고 및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 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계획수립시 관련 통계, 사례, 외부환경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나, 저수지 태양광 설치 등에 따른 갈등요인 및 4대강주변 농업용수 문제 등 갈등 관련 내용 분석이 미흡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요소인 수량과 수질 모두 평가 지표에 반영되었고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등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총 30건의 추진일정관리 중에서 24건은 완료, 6건은 거의 완료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TF’, ‘부처 합동 가뭄대책 TF’, 보개방 관련 ‘4대강 조사평가단’ 참여 등 시설관리, 수량(가뭄), 수질 등 관계기관과 농업용수 공급 관련 다양한 협의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성과지표 중 ‘수리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목표 대비 실적치 제시 미흡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홍수·가뭄 등 재난 대비 수리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에서 정책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 ·쌀소비 감소, 밭비중 증가에 따라 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용수원 개발과 과학적 물관리를 통한 물 공급 서비스 향상은 필요
4. 환류노력도	우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합동점점을 통한 의견수렴 및 개선에 비해 생산자, 농업인, 농촌주민과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미흡 ·추진일정 관리, 수리시설 이용자만족도 등 관련 지적 사항은 대체로 수용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 '18.3월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 구제역 역대 최단기간(4일) 내 확산 차단, ASF 유입차단 등 방역 성과 창출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으로 사육돼지에는 최초발생 후 23일 만에 10. 9일을 마지막으로 90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는 상태
 - 접경지역의 철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등을 통해 남쪽으로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전문가 의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은 발생시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에는 큰 손실을 야기하므로 사전에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와는 별개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사업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당면 현안인 ASF 중심의 문제점 분석을 적절하나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는 보완할 필요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와는 별개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사업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
-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고 대책에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함 ·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중국내 지속발생으로 국내 발생 우려가 커지고 특히, 북한 발생(19.5.30)이후 특별 관리지역 지정, 국경검역 강화, 남은음식물급여금지등 사전에 미리미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정의 미지점을 보완한 계획수립이 돋보임 · 예방백신, 방역소독 등 관련사항 지표 추가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수립한 계획에 맞춰 추진일정을 잘 준수하였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업에 충실하였음 · 관계기관이 협업을 이루어 과제를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 차단하는데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짐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관련정책들로 인해, AI미발생, 구제역 역대 최단기간 (4일) 내 확산 차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으로 최초발생 23일 만에 유입을 차단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만·관·군 총력대응으로 확산저지한 부분에 대한 우수사례는 정책의 효과성으로 볼수 있음
4. 환류 노력도	우수	· 관계 기관과의 협업에 충실하고 정책수요자와 소통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양돈농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발생지역 양돈농가의 불안 심리해소 등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 · 외부 지적사항(살처분 참여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 마련, 오리휴지기제 농가 보상방안 마련, 심각단계 기간 중 공중 방역수의사 국외여행 추천 요건 강화)에 대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발생 시 대응) '19.1월 안성·충주 발생 시 신속·강화된 방역조치^①와 민·관 협력^②, 가용자원 총동원^③으로 단기간(4일)에 마무리^④

① 이동제한 확대(3km 반경 → 발생 시군 전체), 전국 긴급백신(1,383만두, 1.28~2.3), 전국 가축시장 폐쇄 및 축산농가 모입금지(2.1~2.21) 등

② (민간) 전국 긴급백신 접종 시 설 명절 연휴에 민간 수의사(167명) 적극 참여, (행안부) 특교세 지원 등, (국방부) 군 제독차량 지원 (경찰청) 소독약품 배송 지원

③ 농협·지자체의 소독차량(24,388대)과 더불어 군 제독 차량(322대)과 과수용 농약살포기(SS분무기 등 2,479대) 까지 총동원

④ 발생기간/전수 : ('15) 147일/185건→('16) 45/21→('17) 9/9→('18) 7/2→('19) 4/3

- (사전 예방) 백신 일제접종, 항체검사 확대 및 방역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

-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항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5·11월) 및 취약지역 돼지 보강접종(11월) 실시

* 일제접종 완료 4주 후 백신접종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추진

- 방역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방역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제거

* i) 소규모 및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에 소독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단 소독 실태 점검(3월), ii) 백신접종 미흡농가 항체양성률 일제검사(5월), iii) 전국 비육돼지 위탁사육농가 점검(6월) v) 구제역 발생대비 백신 비축(9월)

- (방역기반 정비) '19.1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역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 i) 구제역 백서 발간(7월), ii)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8월), iii)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9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관리가 가장 중요하나, 그간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흡사례가 계속 확인

* 백신접종 명령 과태료 현황 : ('17) 85건, ('18) 214건, ('19.12.12) 350건

- '19년 돼지 평균 항체양성률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사육기간이 짧은 비육돼지(약 6개월)는 백신접종 누락 위험성이 크고 항체양성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관리 필요

* '19.11~12월 도축장 항체검사 강화결과(축종별 항체양성률) : (한육우) 2,919호 32백여두 검사(양성률 99.0%), (젖소) 544호 578두(99.8%), (비육돈) 5,881호 989백두(71.4%), (번식돈) 65호 920두(92.4%)

- 구제역 발생 피해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 필요

* 연도별 구제역 발생건수 : ('15) 185건→('16) 21→('17) 9→('18) 2→('19) 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백신접종 유도를 위해 소·돼지 항체검사 확대

-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매년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

* 자가 접종을 시행하는 전업농(21천호, 전체의 20%)은 전(全) 농가에 대해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19년 2.2%에서 확대)

* 공수의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50두 미만, 전체 소 농가의 80%)는 전농가의 12% 수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19년 9.8%에서 확대)

- (돼지)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1회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는 폐지

* 도축장 항체검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각 농가별 연 4회(농장 2, 도축장 2) 실시

* 검사두수(육성용 10마리, 번식용 3)를 확대(비육돈 16마리, 번식돈 3두)하여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는 추가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부과

-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축산 체질개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축산 사육환경 개선, 농가 방역 책임성 강화, 방역추진체계 개편, 방역지원체계 효율성 강화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여건과 사례를 분석하여 과제추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분기별 계획 및 법제도 개정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등 적절함 · 평가지표(돼지 백신 항체양성률)는 돼지 구매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이며, 긴급 행동지침은 과정 지표로 지표 설정이 적절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 일정이 충실히 관리되었으며, 관련기관 간 협업도 계통을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정량지표(돼지 백신항체양성률)의 적극성이 다소 낮고 일부 미달성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구제역 발생 중 최단기간 4일만에 마무리로 피해감소, 구제역 발생이 감소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기여 및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로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남 · 조기근절을 통한 안정적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은 인정되나, 경제 및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질병인 구제역의 산발적인 발생 근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4. 환류 노력도	보통	· 검토 지적사항을 마련하고 개선하였으나 목표치 적극성이 부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추진 내용) AI 발생 예방을 목표로 예찰, 점검, 취약분야 관리, 제도개선, 비상태세 확립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대책 적극 추진
 - * 전국 상시 예찰검사(40만건),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현장점검(6,791개소), 전통시장 유통방역관리제 시행('19.7~), 위험농가 사육제한('19.11~, 오리 207호) 등 추진
- (성과)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AI가 '19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없음
 - 우리나라 고병원성 AI는 '18.3.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19.11월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며, '14년 이후 최장기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음
 - * AI 발생('14년부터 391건→421→22→0), AI 발생에 따른 재정 소요(3,364억원→3,621→827→0), 살처분 규모(3,364만수→3,807→654→0) 등 피해도 대폭 감소
 - AI 청정국 지위 유지에 따라 닭고기 등 수출 대폭 확대
 - * 베트남 등으로의 국내산 닭고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 기록, AI가 발생한 '17년(1~10월) 대비 33배 증가('19.1~10월 38,723톤, '17년 동기 1,157톤)
 -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로 농가 소득 증가와 농업 발전에 기여
 - * 농가경제조사 결과('19.3), AI 발생 감소 등으로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 28.6%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방역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 추진 요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사육제한 관련 농가 의견수렴 등 보다 세밀한 대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사례분석 및 환경여건 반영 우수하고, 과제추진계획이 충실함 · AI 예방을 위한 상시예찰, 현장점검, 취약분야 관리, 비상태세 확립 등 현장 분석이 잘 추진된 것으로 보임 ·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등에 대한 지표 추가 필요 · 결과중심의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환경부, 관련단체 담당자로 구성된 심의회 구성·운영, AI 민관 합동 TF 운영 등 협력 노력도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협의실적,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우수 · 성과지표가 과제의 성과 측정에 적합한 대표성을 가짐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목표치 설정 적극도가 보통으로 판단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AI의 미발생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높으며, 상위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 재해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인정 · 오리 사육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가금농가의 반응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4. 환류 노력도	우수	· 협의회, 토론회, TF 운영 등 다양하고 충실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우수한 개선방안 마련 · 기존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지적 사항에 대응한 개선방안 이행이 인정됨 ·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주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거래 유형 다양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으로 기존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에 기여
 -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 장터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안정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등으로 직거래 규모 4.2조원 달성, 이를 통한 유통비용 연간 1조 1천억원 수준 절감

* 로컬푸드 직매장 월평균 매출액 : ('17) 168백만원 → ('18) 184 → ('19,p) 191

- 지역 농산물을 지역 공공급식과 군급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소비되는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

· '19.10월 기준, 35개 지자체에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6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 추진 등 지자체 관심도 증가

- 나주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참여농가 7.7배 증가, 월평균 정산액 19배 증가 및 군급식의 지역 농산물 구매비중 전년대비 31% 증가



- 도매시장 제도개선으로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추진으로 물류효율화 및 농가 수취가 제고 기여

-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이동하는 물류거리 단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 온라인경매 도입단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출하자 편익은 816억 원, 도매 시장법인은 550억 원, 중도매인은 499억 원의 편익 각각 발생할 것으로 분석 (출처 :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이미지경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krei, 2016))

- 온라인경매를 통한 농가수취가가 일반 오프라인 경매에 비해 20% 높게** 형성

** (온라인-일반경매 가격 비교/표본조사) 피망(2,400원/1,982원, 21.1%↑), 사과(2,800원/2,189원, 27.9%↑)

- 산지 유통조직 규모화,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고, 소비지 적합 상품 생산역량을 높여 유통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 산지 조직화·규모화 확대 유도를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18.12), 산지조직간 계열화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의무 출하율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11월)
 -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기초생산자조직이 2,914개소(11월 기준)로 전년대비 9.3%,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또한 7.7% 증가

* 생산자조직 수: ('15) 2,009개소 → ('16) 2,229 → ('18) 2,666 → ('19.11) 2,914

*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15) 3.5조원 → ('16) 3.6 → ('18) 3.9 → ('19) 4.2

현장 사례 기사

- 제주시 농협은 '19.8.29에 제주시 농협 레몬 공동출하회 창립총회를 개최
 - 레몬 생산 농가는 레몬공동출하회를 통해 공동판매(통합마케팅)를 통한 물량 규모화로 레몬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제주新보, '19.9.8)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다수의 성과지표 가중치가 동일하게 설정(5개 지표, 가중치 20%)되어 과제 내 지표의 중요도 판단이 어려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과제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과 지표별 가중치를 차등하여 설정
- 지역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등 반영 여부 평가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한 추진 계획 수립과 월별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 · 신유통활성화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가 구성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성과지표가 고르게 가중치가 부여된 만큼 같은 비중으로 중요도를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인 농산물 직거래 규모, 로컬푸드 직매장 월평균 매출액, 지역 푸드플랜 수립 건수, 온라인경매 이용자 만족도와 통합마케팅조직 총 취급액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는 탁월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협업과제 발굴과 추진 실적 등의 내용이 우수함 · 체감이 가능한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목표 달성에 중요하며 계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 가능한 대표 수치로 판단되어 우수한 지표로 판단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2019년 정책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 등 다수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성과지표로 신유통경로 비중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 상당 수의 성과를 새로 설정하는 등 목표를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정책 효과가 정량적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성과는 상위 목표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유통부문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낳았으며, 그 성과의 대외홍보 역시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푸드플랜, 로컬푸드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환류 노력도	우수	·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류노력 우수한 것으로 판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업관측 고도화,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 발생(사회경제적 후생 증진 3,211억원)

수급조절사업 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합계
농가 소득 지지	318.4	265.8	250.2	1,545.6	764.9	3,144.9
가계 지출 절감	48.8	17.0	-	-	-	65.8
품목별 사업효과	367.2	282.7	250.2	1,545.6	764.9	3,210.6

* 출처 : 2019년 수급안정사업 효과측정 연구용역('19.12., 고려대 산학협력단)

- (관측 고도화) 드론 활용, 실측 시범조사 등을 통한 관측 정확도 개선으로 관측본부의 재배면적 관측치와 통계청의 통계치와의 격차 완화

* 면적 발표치 격차('18→'19) : 양파(3,312ha→282), 마늘(1,983→182ha)

(단위: ha, (전년대비 증감률,%))

구 분	양파		마늘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재배면적 관측치(A)	22,059(-16.5)	23,113(18.3)	27,871(-1.7)	26,368(6.1)
재배면적 통계 발표치(B)	21,777(-17.6)	26,425(35.2)	27,689(-2.3)	28,351(14.0)
차이(B-A)	282	3,312	182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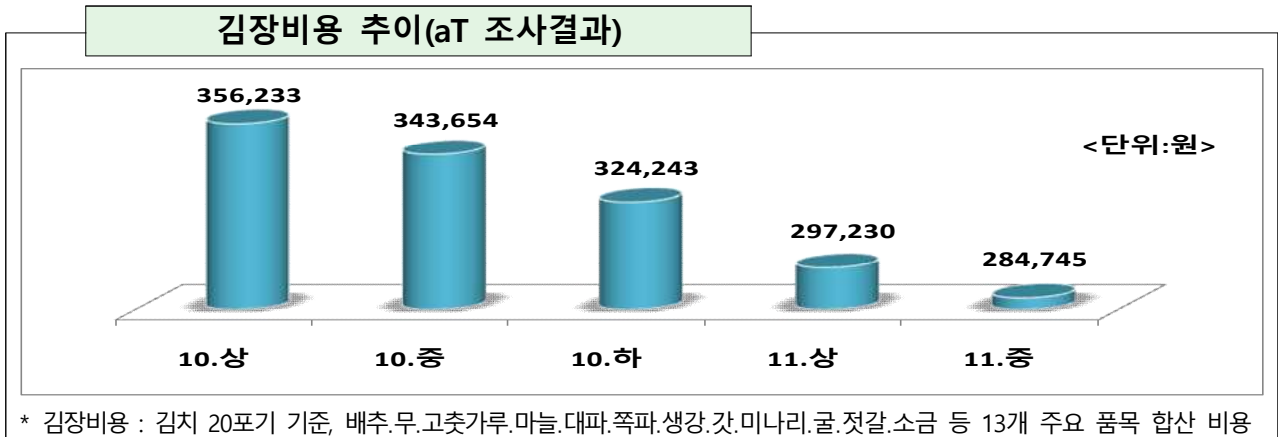
-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①수급안정대책반 중심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명절 성수기 10대 성수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적 유지, ②양파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책 수립으로 양파 산지가격 급락 차단

*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결과 : (설) 306,184원(전년대비 0.2% ↓)

(추석) 271,818원(전년대비 1.6% ↓)

* 정부의 선제적인 양파 수급대책이 없었다면, 수확기 산지거래가격은 300원/kg 이하로 조기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실제 수확기 산지거래가격은 350~400원/kg 수준 유지)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생산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를 통해 현장성 있는 김장대책을 수립하였고, 태풍으로 배추·무 공급 부족이 심각한 여건에서도 대책 추진으로 김장채소류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중 2개 미완수) 농산물 수급관리는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11월) 이후에도 추진
 - * 월동채소류 주산지협의체 회의 개최(12.6.),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 개정 및 시행(개정안 마련 12.20.)
- (성과지표 미확정치) 일부 성과지표*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확정('20.1월)
 - * 5대 채소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생산량대비 생산안정제 물량 비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해 실측조사체계 도입 등 전반적인 관측 업무 프로세스 개편 필요
-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대상 확대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접근 방식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환경 및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수립 · 과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시기별 계획이 충실히 반영 ·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으며, 결과중심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13개 추진계획 중 11개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2개 완료 예정인 추진계획을 미완수로 판정 · 관련기관의 협의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목표의 적극성은 3%미만-낮음, 3~5%-보통, 5%이상-높음의 기준으로 판단함. 모든 지표의 실적이 확정치가 아니어서 달성도는 달성으로 판단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포함하므로 가산점을 적용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관측 정확도 개선, 수급상황 적기 대응을 통한 가격 안정세 유지, 가격 변동률 완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지지 및 가계 지출 절감 효과 발생 · 상위목표인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4. 환류 노력도	우수	·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이상 기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의견에 대해서 충실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금부분까지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하여 주요 축종에 대해서 이력제도 실행 기반을 마련
 - 선제적인 시범사업과 법·제도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적용을 추진
- 민관과의 시스템 연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 사육 예측 등 증거기반의 행정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부 축종의 사육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 관측(산란계, 오리)과 농가의 입식여부 결정이나 정부의 수급정책 활용에는 미흡
 - 수급조절협의회의 형식적 운영과 협의 내용에 대한 실행 부족으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측체계) 농가의 입식결정, 수급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축의 사육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전망으로 개편
 - 농가들이 종축의 입식단계에서 미래 출하시점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육주기* 이후의 중장기 사육·도축마릿수 정보 제공
 - * 한우(40개월), 돼지(12개월), 육계(33주), 산란계(107주), 오리(36주) 등
 - 생산자단체와 자조금을 중심으로 관측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농가단위 문자 발송, 밴드 등으로 전파
- (협의회 내실화) 축산관측(분기) 발간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협의회 정례화 및 협의회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자조금 사업 연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축산물 수급 관련 대내외적 여건 분석이 잘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음 - 다만, 여건, 문제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다소 부족 ·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책정, 데이터 기반의 측정 등 선진적인 성과지표를 구성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관련기관 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과 관련 있는 협업 성과를 냄 · 제시한 17개의 일정 중 14개를 완수하는 등 계획 중의 일부가 미흡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나 대내외 환경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목표와 실제 정책의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 연결이 잘 되지 않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 사유두수 예측 시스템 구축은 우수 · 수급안정, 유통효율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우수
4. 환류 노력도	우수	· 각종 협의회, TF를 통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이 마련하였으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이 계란에 국한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축산업 허가제 강화) 축산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허가기준 준수 여부 일제점검 실시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안전·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역간 협업을 통해 역량·자원을 집중, 적법화 추진
 - 적법화 추진율 92.6% 달성,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축산농가 재산권 보호·확대 및 환경 개선 효과 기대
- (유통 효율화) 거점도축장 지원·육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융·복합을 통한 시장 효율화 기반 마련
 -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편의성 제고 효과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관련 전문인력 육성, 유통업체·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강화
 - 식육가공품 생산량 증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판매점 확대로 저지방·비선향 부위 소비 확대 및 일자리(약 1,700명 추정) 창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 수행 시 세밀한 일정관리 부족
- 법령 개정 내용 중 규제가 많아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변화 등 고려하여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과제 수행에 있어 섬세한 일정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여건변화, 현 정책의 효과 등의 SWOT 분석, 관련사례와 갈등요인 등을 검토하여 월별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과제추진계획은 목표에 맞게 무난하게 제시되고 있음 · 각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결과중심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과제 추진 일정이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었음 · 각종 TF, 협의회를 통한 협의 및 실적이 확인됨 · 생산-유통-소비-정책의 고리 중에서 협의체계에 소비 자쪽 포함은 바람직, 유통 고리가 빠진 것은 아쉬움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5가지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별로 적극성이 보통이거나 높음 · 축산법개정, 무허가축사적법화 지표는 사회적 가치 가점 가능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정책효과가 대체로 잘 나타남 · 상위목표에 기여
4. 환류 노력도	우수	· 각 사업별 문제점 분석·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충실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음 · 기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의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설원예 현대화 보급) 노후시설의 현대화·자동화·스마트화(969ha)를 통한 시설현대화 비율 22.1%(전년 대비 9.5% 증가)를 달성했으며, 관계기관 협업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으로 농업인 난방비 부담을 경감
- (과일간식 선호도)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율은 6.25%로 목표를 달성했으며,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11개소)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통합마케팅 활성화) 18개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의 통합마케팅 취급액 증가율은 기준년도('16년) 취급액 대비 49.9% 증가율을 달성했으며, 과수거점APC 평균매출액 증가율 86.2%로 목표 달성
- (계약재배 활성화) 평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물량 비중을 기존 5.2%에서 7.0%로 상향 설정(전년비 26%↑)하였으며, 기상여건 악화 등 불구 7.1% 수준의 계약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지표가 확실치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품화 비율 등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표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원예 농산물 생산을 현대화 하고 그것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함 · 계획 수립 시 통계분석, 사례 연구, 사례 연구 등을 적절히 반영함. 과제 추진 계획이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됨 · 경영평가, 갈등요인, 관련사례, 환경변화 등을 폭 넓게 반영하여 충실한 계획 수립함 · 통합마케팅 취급액 증가율, 거점 APC 평균매출액 증가율, 시설원예 현대화시설 보급률, 과실·과채 계약재배 비중은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추진 일정은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 계통에 따라 체계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기관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협의 체계 성과가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음 · 지표 2를 제외한 4개 지표는 과거 3개년 실적이 없어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정함. 지표 1은 초과달성, 나머지 4개 지표는 달성으로 판정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과제별로 계획대비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여 우수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계약재배, 스마트팜, 통합마케팅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 과일간식 등의 사업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사업도 우수한 편으로 판단. 상위 목표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세부사업별로 정책적 효과성이 높게 평가됨(우수사례포함), 수급안정, 소득안정 등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4. 환류 노력도	우수	· 현장 의견수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우수 · 사례발표, 관계기관 회의, 순회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외부기관의 문제제기를 정책에 반영 ·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파악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비자 접근성 제고) 꽃 직거래장터 운영, 화원창업지원 컨설팅, 기존 유통채널을 활용한 화훼 판매코너(flower in shop) 설치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꽃 생활화 기반 조성
 - * 화훼 판매채널 확대 실적 : ('17) 2,046개소 → ('18) 3,050 → ('19) 4,545
- (꽃 소비 생활화 확산 홍보) 공익광고 송출(16,616천회), 오프라인(마음사진관) 캠페인(27천명), 꽃 생활화 체험교육(84개 학교·기관, 14천명), 팝업스토어(10천여명), 양재 플라워 페스타(18천여명) 등 대국민 꽃 생활화 홍보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여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 유도
- (품질관리 강화) 꽃집의 품질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꽃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착한꽃집 확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맞춤형 신화환을 제작·배송할 수 있도록 화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화환 재사용 방지와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
 - * 착한꽃집 선정 확대 실적 : ('17) 394개소 → ('18) 531 → ('19) 60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꽃집의 품질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꽃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라 심의, 착한꽃집을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이 다소 불분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훼 소비 활성화의 핵심주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한꽃집'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화훼 소비 촉진·홍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통계 및 소비 동향조사,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이 충실히 수립됨 -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분기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 관련 법률 제정으로 화훼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대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 지표가 수립되었으나, 향후 착한꽃집 선정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정책목표와 부합되는지 점검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일정을 잘 준수함 -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 추진단이 구축되었으며,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과 추진실적 내용이 우수함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소비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더욱 확대 필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3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고, 적극성이 높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생활용 화훼 소비 비중 증가, 판매채널 확대, 착한꽃집 선정 확대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 특히 유통채널에 판매코너를 확대한 성과는 꽃 생활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해 꽃 소비 생활화 확산에 기여 - 꽃 소비관련 직업과 전문 인력양성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노력 필요 - 착한꽃집 선정이 화훼류 품질 관리를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 필요
4. 환류 노력도	우수	-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충실히 수행함 -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성이 높ی 평가함 - 정책환류 노력도가 우수함 -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행을 실시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불금 지급) '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497억원을 지급('19.11) 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1인당 지급면적 규모는 1.11ha수준이며, 쌀직불은 1인당 1.02ha, 밭농업직불은 0.62ha, 조건불리직불은 0.64ha임
 - 1인당 지급액은 약 925천원이며, 쌀직불은 1,019천원, 밭농업직불은 337천원, 조건불리직불은 350천원임
- (단가 인상) '19년 밭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 지급하였고, '20년 예산에도 '19년 대비 ha당 5만원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 제고에 기여
 - 밭직불금 평균 수급액은 4.7% 증가, 조건불리직불금은 12.2% 증가
 - * 밭고정 직불금 농가당 평균 수급액 : ('18) 322천원 → ('19) 337천원
 - * 조건불리 직불금 농가당 평균 수급액 : ('18) 322천원 → ('19) 350천원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고령 은퇴농에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 11월말 기준 총 14,367ha(신규이양 647, 분할지급 13,720)에 대한 직불금 344억원을 지급
- (부정수급 방지) 직불금 신청자·신청농지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방지
 - 신청접수 후 지급전까지 서류검증, 현장확인, 타부처 정보 연계 검증 등 실시, 요건을 미충족하는 52천ha(359억원 상당) 직불금 지급 제외

- (공익직불제 개편) 사람·환경 중심의 직불제 개편으로 소득재분배 및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

* '20년 예산 24조 확정(19.12.10) 및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9.12.31 공포)

- 쌀 생산면적 감소로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밭작물 재배여건 개선 및 재배확대로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
-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작물 재배 농업인간 형평성 제고(현재 : 논고정 100만원/ha, 밭고정 55만원)
- 일정규모 이하 농업인에 대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여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도모
- 환경·생태 관련 준수 의무 강화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중 정주농비율은 과거 3개년 실적 평균(99%)보다 낮게 설정되어 적극성에 낮음으로 판정
- 정주농비율 지표는 기재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9년부터 측정산식을 변경함으로써 측정산식이 다른 전년도 실적과의 직접 비교 대신 최근 5년간의 평균값(98.4%)을 기준으로 목표(98.5%)를 설정하였으나 적극성을 인정받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 발굴 필요
-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연구용역 분석 및 환경여건 반영 우수하고, 과제추진계획이 구체적임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 · 성과지표는 대체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으며, 결과중심의 지표(실제수취가격 지지율)가 포함되어 있음. 단, 밭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은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지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지율이나 정주농 비율 지표들은 실적치가 한계에 다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 ·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담수령이나 농업인의 중복 수령 등 부정 수급방지 개선 효과를 추가하기를 권장 · 쌀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20개 과제 중 18개 완수됨 ·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은 인정되나, 추진실적이 대부분 협의 단계이어서 다소 진전될 여지가 있음 · 공익직불제 개편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해서 논의, 해수부와의 직불제 정보 연계 추진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모든 지표의 달성도는 달성으로 판정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으로 사회적 가치 인정됨 · 정책효과성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상위목표 달성기여도는 인정 · 정주농비율 지표의 목표치 설정 적극성이 낮음으로 인정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직불제도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효과가 큰 편임 · 성과 목표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정책효과성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상위목표 달성기여도는 인정 · 공익직불제의 개편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모색 필요 ·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체계의 면적직불금 지급은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도모에는 효과적 - 단, 획일적 적용은 경영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작기간을 대상 기준에 포함 시키는 등, 기존의 영세, 고령농과 은퇴 후 취미형 소농을 구분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사료됨
4. 환류 노력도	보통	· 개선방안 과정이 사업수행상 필요한 업무로 판단됨 · 지자체·수혜자 대상 의견수렴 노력, 정부예산안 증액 및 직불제 개편 등 정책환류노력 및 개선방안 실적이 인정됨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우수함 · 사업 자체에 대한 전환을 환류로 인정하기 곤란함 · 농민단체 주장의 정책 반영이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농협과 관련된 법령,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 및 조합장 공명선거 개선방안 마련

○ (경제사업)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 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지주 책임판매비중* 증가 및 생산자 편익(23.71%)** 증가

* ('11) 1,8938억원 /11.2% → ('14) 31,147 /17.1 → ('18) 52,761 /29.3 → ('19e) 55,782 /31.4

** 농협 매입가 125,595백만원(1,759원/kg) ⇔ 도매 매입가 95,809(1,558/kg)

○ (조세특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추진(세법 개정안 반영) 하여 12건의 조세특례 유지, 농업부문 편익 3조 1,268억원 추정

*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감면액 : ('17) 25,323억원 → ('18) 26,919 → ('19e) 30,310

○ (법령 및 규정) 어려운 국회 여건(여·야 대치 등)에도 농협법, 농협구조개선법 등 농협 관련 개정 법안 처리(상임위 의결)

* ①농협중앙회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농협법 제125조의7), ②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 보호대상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추가(농협 구조개선법 제2조 제6호), ③상호금융 동일한도 대출한도를 일반은행 수준으로 증가(상호금융감독규정)

○ (실익지원) 농협중앙회와 연계한 '19년 전체 농가 실익지원액은 1조 1,656억원으로 추정

* 비료, 농약, 상토, 필름, 농기계, 사료 등의 경영비 절감(4,239억원)을 포함하여 '19년 약 1조 1,499억원 농가소득 기여(농가당 113만원)

○ (공명선거) 제2회 조합장동시선거 결과 위법 사항 감소 등 정책 효과 달성 및 조합장 선거 인식 개선

- 합동점검 등 적극적인 무자격조합원 정리로 선거분쟁 최소화

※ 조합장선거 만족도 조사결과('19.3월) 응답자의 대다수가 ①선거가 공정했고(86.7%), ②예방·단속 효과가 있다(83.6%)고 응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도개선 성과목표가 법 개정 완료로 판단됨에 따라, 성과지표 중 달성도 부분에서 일부 미달성으로 평가
- 법 개정은 국회 일정과 외부여건에 따라 개정 시기 등이 큰 영향을 받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 정부는 국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입법계획 수립 시 정부안 발의를 입법 목표로 설정(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법 개정의 경우 지표달성의 목표를 '농협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등 노력 병행
-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구축한 협업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방안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내·외부 환경 및 현장 의견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 적절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는 탁월한 수준이라 판단됨 · 다만,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위원별 검토의견은 상이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농협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등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에서 일부 미완수로 평가 · 과제별 관계부처 및 기관,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농협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조합장 선거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목표치의 적극성과 정책 효과는 높은 수준임 - 다만, 개정 법안 공포 등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평가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가점(+0.5점)은 일부 미반영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 조세특례 연장을 통한 농업인 편익 증가, 경제지주 책임 판매 비중 증가, 무자격조합원 정리 등 공명선거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등의 정책효과 발생 · 정책효과 발생정도는 우수하나,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 설명이 필요
4. 환류 노력도	우수	·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등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충실함 · 주요정책평가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등 환류노력이 적절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행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 전문성 제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경영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16) 27.5 → ('17) 30.1 → ('18) 33.1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금년 시범적으로 개최하는 농업 종합박람회로 농업의 미래와 새로운 모습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 ASF 발생으로 개최 일정·장소 변경 및 축산분야 제외 등 규모(1/6 수준)와 일정(4일→3일)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33,095명 입장(목표(23,000명) → 관람객수(33,095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부족함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은 과거 3개년 실적 평균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목표 적극성이 부족함
- 만족도 척도 세분화 필요
 - FTA 직접피해지원 관련 상담안내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는데 좀 더 세분화 된 보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의 목표설정을 3개년 실적평균보다 높게 설정 필요
 - '20년도 주요정책 성과관리시행 시 3개년 실적 평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20.3월)
- FTA 직접피해지원 관련 상담안내 만족도 세분화 필요
 - '20년도 만족도 조사 시 10점 척도 설문지 사용('20.10.~12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FTA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현장점검, 이행과제 점검, 투융자 계획 등 월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현장 애로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계획 반영 노력은 약간 부족함 · 과제에 비해 성과지표가 부족하고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된 보기를 제시하기 바람 ·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은 결과지표로 타당하나 직접피해 지원 상담안내 만족도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11개 추진계획이 모두 완료되었음 ·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3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함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은 과거 3개년 실적 평균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성을 낮음으로 평가 · 성과지표가 농가 소득 보전, 국민과의 소통 등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 FTA국내보완대책의 경우 직접적인 달성효과로 보기 어렵지만,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됨 · 농업박람회는 종합박람회 외 농식품분야의 개별홍보 행사를 연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언론홍보 성과도 나타남
4. 환류 노력도	미흡	· 현장 의견수렴 실적을 충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인정됨 · 상생기금은 작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불 예산 20% 감축 및 폐업지원 단계적 폐지 의견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20년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정책개선 노력에 해당된다고 파악하기 어려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촌의 중심거점(읍면 소재지)에 보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거점지역에서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마을 개발* 등을 통해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중심거점(읍)-하위거점(면)-배후마을 간 서비스 공급 연계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및 마을만들기 1,058개소(누계) 선정(목표 934개소 대비 113.3% 초과 달성)
 -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 농촌의 자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
 - * '19년 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지구 20개소 선정(목표 20개소 대비 100% 달성)
- 빈집철거*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 등 위해요소(석면 등)가 제거되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 * 빈집 2개년 누적 15,306동 정비(목표 15,660동 대비 97.7% 달성)
 - ** 취약지역사업을 통한 마을만족도 : (사업전)47점 → (사업후)83점
마을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 정도 : 89%가 '도움 됨'으로 답변
- 농촌의 고령자 및 신규 유입하는 청년층의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 특화형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추진
 -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주택 배치계획, 단지 특화계획 등 점검 → 살기 좋은 주거 및 환경 제공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항목 자체는 우수하나 측정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
 -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과 빈집 정비가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가 투입지표 성격으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중심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
-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업성과지표로 추가 활용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3·6·5 생활권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현 정부의 돌아오는 농산어촌 지향에도 적합함 ·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등 우수 · 항목 자체는 우수하나 측정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과 빈집 정비가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 · 성과지표가 투입지표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대체로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기관,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 광범위한 협업 노력을 인정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는 모두 신규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정, 사회적 가치 가점 0.5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빈집정비 및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4. 환류 노력도	우수	· 세부사업별로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함 · 평가결과와 외부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기준 소득금액 : '18년 91만원 → '19. 97만원)하여 농어업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중 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9천명 증가
- 농업인에게 질환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유지 기여
 - *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 (계획) 60백명 → (실적) 97백명
- 행복나눔이 활동비 인상 및 폭염대비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행복나눔이 방문서비스 지원 확대
 - * 행복나눔이 인건비 인상 : '18. 1.2만원 → '19. 1.5만원
 - * 행복나눔이 지원 실적 : ('18.10월) 20,815명 → ('19.10월) 21,922(+1,107)
- '19년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 8,756명에 대해 장학금 125억원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인력 양성 기여
 - 청년층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규 도입
-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출산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등 권익향상 제도 기반 확충
- 농업에 돌봄·교육·고용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통해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19년 18개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9년 영농후계장학생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 비율은 56.3%로 성과지표 목표치(62%)의 90.8% 달성

- 농대생 평균적 진출 비율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효과가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실질적 성과 제고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성과지표 경우, 실적지표, 투입지표 등 다소 과정적 지표 설정으로 사업 효과성 측정 한계
- 농촌특화서비스로 의료보건서비스 혜택자 증가, 교육문화복지 수혜자 증가,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지표 등 지표 일부 누락
- 농촌 복지 시책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 설정 필요
- 영농후계장학생 지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고령화, 복지 등 관련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며 추진 계획 등은 비교적 적절한 수준 · 일부 성과지표 경우, 투입지표 성격이 강해 보완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농업인연금보험료 일몰기한 연장 홍보 등 2개 일정에 대해 평가 당시 미완으로 심사
3-1.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 일부지표 목표 미달성, 일부 목표치 설정 보통으로 평가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상위목표 달성 등 정책효과 대부분 긍정 평가 · 분야별 과제를 융합할 수 있도록 체계화 등 필요 의견
4. 환류 노력도	우수	· 대체로 환류 노력도 긍정 평가, 일부 부족 부분 지적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4시간 이동권 보장(삼야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접근성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 *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국 81개 군지역 대상으로 확대
 -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농촌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향상
 - * 교통모델 이용자 수 : ('18) 1,935천명 → ('19.11) 2,400(목표: 2,500)

과거 (AS-IS)	개선 (TO-BE)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4.7점 •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29.7분 • (버스 대기시간) 34.4분	⇒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79.1점 •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6.5분 • (버스 대기시간) 7.7분

-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농촌형 교통모델 성과 홍보
 - * 전국방송 MBC뉴스투데이(9.28), 목포MBC(9.29), 생방송 전국시대 목포 MBC(10.14), 한국농어촌공사 사보(12.1 발행) 등
-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9.24~26)에서 한국 농촌 정책 우수사례로 발표 ≡ 국제적 관심 확보
 - *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혁신정책 우수상 시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성과 측정을 위하여 단독지표 외에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보완지표 개발이 필요, 신규지표로 적극성이 보통
- 보고서 내용에 정책대상자 의견수렴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촌형 교통모델 성과를 보다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성과 관리 방안 모색, 성과지표 보완 검토 필요

* 성과 달성도 실적이 분기별 실적치를 감안한 예상치로, 추후 최종 실적치를 반영하여 재평정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외 여건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정책 기획에 반영, 적절한 성과지표 선정,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이행 결과물이 명확 · 농촌지역 교통취약에 대한 여건분석은 적절, 사례분석이나 이전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은 부족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계획한 일정이 모두 완료, 국토부 및 지자체와 상시적 협의 추진(버스형 교통서비스 확대 과제 추진 우수) · 사업 운영지침을 공동마련하고 사업지역을 분할하는 성과
3-1.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 신규지표로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 제시한 실적은 분기별 실적치를 감안한 예상치로 평가시점에서 목표 미달성 · 사회적 가치 관련 가점 부여(0.5)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농촌의 공간구조상 대단히 중요한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 이용자수증가, 서비스 만족도 개선,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단축,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이동권 개선에 기여 · 인사혁신처 우수사례에 선정, 다양한 언론매체, OECD 농촌 발전 컨퍼런스 등을 통해 홍보 · 상위 목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
4. 환류 노력도	보통	· 권역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책대상자들의 의견 수렴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움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반영 노력이 대체로 인정되나, 그 내용의 구체성(조치계획 수립 등)은 떨어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정협의회) 정부 농정방향 및 현안에 대해 농업인 단체와의 소통 강화, 사전 갈등요소 차단, 농정 신뢰성 제고
 - * 총 7회 개최, 25건의 농정 현안 논의, 132개 기관·농업인단체 참여, 30건 건의사항 검토
-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신규 지역 선정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법적 보장을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 '19년 현재 15개소의 설립·운영, 18개소가 설립 준비 중
- (농특위) 범부처 민·관 협치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출범 ('19.4.25)을 통해 농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반영할 수 있는 논의 장 마련
 - * 9개도 지역농정거버넌스 협의회 구성, 국회대토론회(9.3),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 9회
- (지방농발계획) 지자체 농발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지방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및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
- (삶의 질) 제4차('20~'24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포함) 개최
 - 정책 환류를 통한 성과 제고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사전 협의제도 및 농촌협약제도 도입,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3개년 평균 실적치 산출이 어려운 지표 및 신규지표는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단
- 다양한 업무를 통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약간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대책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미흡	· 농정협의회, 농특위, 각 부처 자료 등을 토대로 계획에 반영. · 결과 중심의 지표 설정, 성과 측정에 관한 대표성 여부, 지방 농촌 발전 계획 등에 있어서 의미가 있음. 다만, 단순한 횡수 등의 정량적 평가 위주로 인하여 퇴색되는 아쉬움이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농정 협의회, 농업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추구하였으나, 이색 분야의 관련 기관과도 협력을 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관련기관, 관계자 협력 등 협의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으며 협업 노력도 우수하다고 판단됨
3-1.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 3개년 평균 실적치 산출이 어려운 지표 및 신규 지표는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단 · 농촌의 삶의질 향상 정책은 포괄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 특히 범부처, 지방 등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함으로 난이도 높은 정책이라고 판단. 다만 성과가 뚜렷하고 광범위하지는 못함 · 소통, 참여농정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로 평가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소통하는 농업농촌 상위 목표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기여는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
4. 환류 노력도	보통	·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노력은 인정되나,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함 · 거시적 정책방향 조정, 농업회의소 입법관련 조항수정, 농특위 추진 등 전년평가, 외부평가 결과의 반영 노력이 있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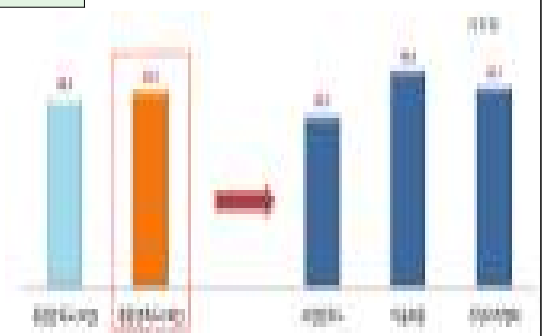
- 마을리더 교육을 통해 자발적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 개발사업 추진 능력 향상과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목표대비 초과달성(105%)
 - * '19년 역량강화 설문조사 결과(580명 응답), 역량변화량이 교육 전 2.84 → 교육 후 3.95%로 1.11% 제고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농촌현장포럼의 사전 실시를 의무화하고,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복지·소득사업과 연계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
 - * 콘테스트 역대 수상마을의 방문객 연평균('16~'18) 14.8%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과 조사결과

◇ 콘테스트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만족도 85.5점

- (주민의식변화) 콘테스트 수상마을('14~'18)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2%**가 '**역량강화 등 마을 발전기회를 마련했다**'는 응답
- (마을화합) '**마을 화합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94.7%**
- (콘테스트 행사 만족도) 행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 81.0점

* 종합만족도 = (주민의식변화 + 마을화합 + 콘테스트 행사만족도) / 3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과 조사결과 >

- '19년 사후관리 현장점검(목표 100% 달성)을 통해 유형별, 활성화 정도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제시하여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촉진
- 총 3,212개 점검 지구 중 활성화 지원 필요지구는 3.9%(127개소) 수준으로, '18년 대비 1.3% 감소
 - * '18년 총 2,787개 점검지구 중 활성화 지원 필요지구 145개소(5.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효과에 대한 내용까지 고려 필요
- 마을 참여 유도를 위해 행복마을 콘테스트 온·오프라인 홍보,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 추진하였으나, 중형 산불피해 발생, 가축 전염병 방역 등 농촌지역 대형 이슈로 인해 불가피 참여 마을수가 소폭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농촌마을리더의 교육 참여자 수요 감소 예측, 이에 주민 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	미흡	· 외부환경, 내부역량, 설문조사, 콘테스트 등 계획 수립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 점을 인정 · 전형적인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결과지표화 할 필요가 있음
2. 집행과정의 적절성	우수	· 대부분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 농식품부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도 양호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 목표치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음 · 다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의 경우 태풍, 가축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신청마을수가 다소 감소 * 사회적 가치 가점 부여: 공동체 활력 증진(0.5점)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교육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인식변화, 지역개발의 내실화 등에 기여한 점과 상위 가치에 기여한 부분 인정 · 다양한 업무를 통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약간 미흡
4. 환류노력도	보통	·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개선결과가 확인 되는 등 긍정적,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 · 개선방안이 정책개선에 실효성이 다소 부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중심 1·2·3차 산업 연계를 위한 지역단위 지구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 * 인증사업자 수 : ('17) 1,397개소 → ('18)1,524 → ('19) 1,624
 - ** '19년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기초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은 전년대비 전년대비 8% 증가, 평균 고용창출 인원은 5.2% 증가
 -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네트워크 수(누적) : ('18) 20개소/70개소 → ('19) 24/77
-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복합산업 제품 편의점 입점, 전용판매관 확대 유통망 구축 등 새로운 판로 지속 발굴 추진
 - * 전문 MD(20명) 대상 편의점(세븐일레븐) 입점 품평회 개최(45개소, 89개 제품 참여), 최종 7개 경영체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 후 '20년 2월 입점 예정
 - * 한국관광명품점(인사동) 내 49개 경영체, 212개 품목 전시, 인천공항 내 면세점 6차산업 판매관 개설('19.11)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인프라·R&D 등을 통합 지원한 결과 지구 매출액·방문객·일자리가 각각 54%, 33%, 26%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평균 매출액을 제외하고 인증사업자 수, 갱신 신청 비율 등은 과정지표로 평가
- 협업 대상기관은 위원회나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이 다수이고, 협업 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의 적극성을 높일 필요
- 대기업과 협업하는 등 민간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있으나, 성과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협력 대상 중 지도감독 기관 외 타부처·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장의견 반영, 전년도 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19년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통이거나 낮고, 과정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 개편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과제별 추진일정은 완수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업 시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기관 외 타부처·부서간 업무소통 필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갱신 신청비율, 지구 평균매출액의 성과목표 달성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 및 공동인프라R&D 지원 결과, 인증사업자 및 지구 내 사업자 매출액·고용인원·방문객 등이 큰폭으로 증가
4. 환류 노력도	보통	· 시도별 지원센터장회의, 현장간담회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방식 개편 및 규제발굴 개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촌관광 상품다양화, 안전·서비스 품질제고, 홍보강화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 농촌관광객 수(전체/외국인):('16)1,001/16.4 → ('18)1,237/22.0→ ('19.11)1,307/23
- 농촌관광 자원간 연계를 강화한 콘텐츠 개발, 연차적 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제고 등을 통해 농촌관광 방문객 유치
 - * 농촌관광 매출액 : ('18) 198.0 백만원 → ('19) 203.5p
- 파워블로거·기자단 팸투어 연계 시기별·테마별 농촌관광지 홍보, 유튜브·SNS 활용 공모전 추진 등으로 홍보효과 증대
 - * 여행주간(5월, 9월), 여름휴가('19.6~8월) 등과 연계하여 할인행사, 특별 여행상품 운영, 이벤트, 유관부처 합동 캠페인 등 실시
 - **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공모전(6월), 농촌자원 활용 힐링 ASMR 공모전
 - *** 주한미군 팸투어(4회), 농촌관광 글로벌 서포터즈(20명) 운영 등
-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 기준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재의 성과지표(농촌마을 체험관광객 수, 외국인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사업성과나 적극성 반영이 다소 미흡
-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반영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이에 대한 정책반영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기적으로 단순 방문객 외 농촌경영체들의 성과 및 변화에 대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대내외 여건 및 수요변화 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농촌관광 여건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과 새로운 수요 변화 등이 정책기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제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변화에 대응하는 지표 발굴 및 보완 필요 · 장기적으로 농촌관광 경영체들의 경영성과나 성장 추세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 필요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다양한 정책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등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량적 지표가 부족
4.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노력은 인정되나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귀농·귀촌은 꾸준히 지속되어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 귀농귀촌 인구(귀농): ('13) 422,770(17,318) → ('15) 486,638(19,860) → ('18) 490,330(17,856)
 - * 농촌인구 : ('10) 8,758천명 → ('15) 9,392 → ('16) 9,501 → ('17) 9,629 → ('18) 9,714
 - 특히,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 기록
 - * 40세 미만 귀농가구 : ('13) 1,164가구 → ('17) 1,325 → ('18) 1,356
- 귀농 정책 수혜대상 확대를 통한 정책사각지대 해소 및 귀농 활성화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개정
 - * 한해 평균 3,000여 가구가 수혜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 지원 성과 창출
 - 농외일자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의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등)에는 귀농귀촌인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연계
 - * '19년 15,211명의 정보를 연계하여 1,595명이 취업 성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조사시기 등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교육 수료자 만족도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을 권장
- 일부과제의 당초 시기보다 조정된 점 등은 추후 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귀농·귀촌 관련 대내외 여건, 갈등사례 등에 대해 충실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함 ·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만족도 지표는 적절하나,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조사시기 등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 하고 교육 수료자 만족도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을 권장 ·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근거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특히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 선입견과 덧세로 조사되어 지역별 융화프로그램을 정책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시행한 것은 우수함 · 교육성과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중심의 성과지표에 해당되나, 대표성은 보통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일부과제의 당초 시기보다 조정된 점 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함 · 계획대비 대부분 정상추진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통계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정부합동 TF 및 시도 정책간담회에 참여 등 다부처와 협업하여 사업 시행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보통	· 귀농교육 후 정착율 지표는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나, 교육수료자 만족도 지표는 적극성이 높지 않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귀농귀촌자들에게 실효성있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 교육, 컨설팅 등 정부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구 구조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구 증가와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증가의 정책효과 우수 - 귀농귀촌인구(490,330명)중 2만명이 농업종사(4%), 농림어업 취업자수증가로 농업 인력유입 확인 · 각종 정책 시행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이주에 크게 기여
4. 환류 노력도	우수	· 귀농귀촌 업무담당자와 소통, 교육참여자 의견수렴,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등의 적극적으로 추진됨 · 청년 귀농귀촌, 농산업창업교육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정책대응이 인정됨. 지속적인 소통과 추진노력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맞춤형 교육) 교육대상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기회 제공
 - (영유아·학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과일·채소 활용 미각교육, 텃밭활동 지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18) 914개소→(‘19) 956)
 - * (교육 전·후 성과조사) 아침식사(67.9점 → 72.8), 식품의 고른 섭취(66.4점 → 74.6), 지역농산물 선호도(67.4점 → 79.1) 등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 발생
 - (고령자)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건강교육, 조리실습, 건강밥상을 제공하는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프로그램 실시((‘18) 981개소→(‘19) 1,377)
- (교육수요 발굴) 군 장병, 직장인 등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교육·체험 기회 제공
 - (군장병) 군 장병 식생활 및 급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5.17) 및 장병 식생활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연 10회)
 - (직장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업을 통해 직장인 대상 ‘식생활-체력-의료 통합서비스’ 제공(8개소)
- (교육자료 개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영상 형태의 교육 자료 개발 및 식생활·소비 정보 제공을 위한 매거진 발간
 - (교육영상제작) ㈜오콘*과의 업무협약(‘19.3.26.) 및 EBS와의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슈퍼잭)를 활용한 교육 영상 제작(13편)
 - * 「뽀로로」시리즈를 제작·보급한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기업
 - (식생활정보제공) ‘농식품 소비공감*(6만권), ‘제철 농산물 포스터’(월 800매)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 * 공정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매우우수 과제로 선정
- (교육·체험공간 개선) 우수 식생활 체험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실시('19.11~)

* 우수식생활체험공간(264개소, '19.11) 식생활교육기관(61개소, '19.11) 지정

- (교사 역량강화) 교육 현장에서 식생활교육·체험을 담당하는 교사·영양(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교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내용·방법·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확대(('18) 982명→('19) 1,453)
 - (영양사) 현장의 식생활관리자인 영양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14,727명)
- (우수사례 발굴) 제2회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식생활교육 참여주체의 우수사례 발굴·포상
 - 사례집 제작, 성과공유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 유도

* 우수사례집 제작 후 차년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배포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식생활교육·체험 확산의 정량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참가자의 교육 전·후 비교 등 정성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성과지표에 미반영
- 식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식생활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식생활교육의 정성적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식생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소비자가 희망하는 교육 및 체험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계획 수립 시 대내외 여건 분석,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이 적절히 반영됨, 과제 추진 계획이 사업 수행단계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기별로 수립됨 · 계획-교육과 홍보-점검과 역량강화-평가 및 환류 등을 포함하는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함 · 소비자가 희망하는 교육 및 체험 발굴이 요구됨 · 성과지표가 참가수에 한정되어 있는데 확산의 성과지표로서 기본적인 지표로 사료되나, 이 밖에 확산의 보완 지표와 질적인 측면의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 일정은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 부처 간, 부처 내, 지자체, 농식품 유관기관, 관련 학계,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할 활동을 함 · 관련 TF, 협의회, 학회 등을 구성 및 개최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목표 설정의 적극성이 높음으로 판된되었으며 11월 말에 이미 성과지표 실적을 100% 초과 달성함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계획 추진으로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어 정책적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 ·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 건강권 보장
4. 환류 노력도	보통	· 분기별로 협의회, 사업설명회, 현장점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문제점 발굴 및 각 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지침 개정과 시범사업에 반영함 ·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간평가 및 결과 평가를 통한 환류를 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 시행 이후 '18년 농산물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0.06%p 감소)
 - * 농산물 생산단계(농관원) 부적합률은 0.13%p 상승('18. 1.70% → '19. 1.83), 유통단계(농관원, 지자체)는 0.16%p 감소('18. 1.20 → '19. 1.04)
- '18년 동기간 대비 농약출하량은 8.6%p 감소*되어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 문화 조성
 - * 농약출하량(작물보호협회) : ('18.11월) 17,229톤 → ('19.11) 15,745(1,484톤 감소)
- 부적합 발생 지역·품목 농업인 사전 컨설팅(47천 농가), 지자체 'PLS 현장 상담센터' 구축·운영('19.6월~) 등 추진 결과 농업인의 PLS 인지도 증가
 - * PLS 인지도 조사 결과(농식품부)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약 PLS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의 지속적인 해소와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등록 농약사용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전 농약 안전사용 교육·지도관리하고 반복발생·밀수농약사용 농가는 엄격한 처분 필요
-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농약등록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 ① 농약등록 확대, ② 범용농약 개발 요구, ③ 외래병해충 발생 대응 신속한 농약등록, ④ 비산 저감을 위한 살포보조제, 노즐 등 개발, ⑤ 비의도적 오염피해 발생 대비 분쟁조정절차 제도화
-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 향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충실하게 대·내외적 여건 변화, 환경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 보완 필요 ·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에 있어 효율성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이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계획 대비 추진 일정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농약 PLS 정책효과 평가(연구용역)와 HACCP 컨설팅 만족도 조사가 추진 중(19.11월 기준)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축산물 HACCP 컨설팅 인증률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 등이 보장되어 사회적 가치, 인권보호에 해당되어 가점부여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소비자 신뢰향상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식품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 ·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 축산물 안전관리는 만족도 점수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자료 제시가 필요
4. 환류 노력도	우수	·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매우 우수함 ·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마련 보완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계약재배 확대 : 직접효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계에는 안정적인 소득 및 판로확보, 식품업계에는 원활한 원료수급에 기여
 - * 계약재배 참여 농가 : '18) 11,372농가 → '19) 14,260농가
 - *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농산물 거래액 : '18) 911억원 → '19) 1,228억원
- (농업 측면) 지속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계약재배 참여 확대는 농업인 소득 안정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 (기업 측면)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는 신뢰성 높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수익 창출을 하는 효과가 발생
-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 간접효과) 식품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례발굴·홍보('15~), 예산지원('16~), 인센티브 확충('18~)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15년) 515만톤(8.07조) → ('16년) 519(8.56조) → ('17년) 538(9.3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산농산물 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 필요
- 상생협력 경진대회와 같이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한 협업노력 필요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 필요
-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사용 체계 확보 필요
- 농업인, 생산자조직의 의견수렴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식품산업의 현황, 농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통계 및 사례조사,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제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기별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 ·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성과측정에 적합한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자료의 신뢰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인 국산농산물 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과제별로 추진계획이 잘 수립되었고 추진실적이 우수함 ·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졌으면, 협의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상생협력 경진대회와 같이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한 협업 노력이 필요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실적이 우수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표를 신규로 반영하였음 · 성과지표의 최근 3개년 실적이 없어, 목표치의 적극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계약재배 확대, 국산 농산물 사용 증가 등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식품외식산업 성장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아직까지는 사례중심의 성과가 많고, 계약 재배를 통한 국산 원료사용 체계가 확보되지 않는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책 효과성을 보통으로 평가함
4. 환류 노력도	우수	·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된 것으로 판단됨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환류 노력이 인정됨 · 농업인, 생산자조직의 의견수렴 확대가 필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식진흥법 제정)**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 **한식진흥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19.8.27.)
- **(농식품 수출확대)** 해외 한식당 협의체(11개국 22개 협의체)를 통해 쌀, 전통장류 등 **105톤 이상 수출**(‘17년 28톤)
 - 한식 급식사업,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확장 등을 통하여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 및 현지 한식당의 국산식재료 사용 발판 마련
 - * 상해·쿠알라룸푸르 협의체 구매액은 ‘18년 145백만원에서 366백만원으로 증가
- **(일자리 창출)** 한식문화 홍보사업 등을 통해 높아진 한국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당초 목표한 **일자리 창출 목표 초과 달성**
 - **한식 전문인력 해외 취업지원 사업**은 사업방식 개선(사업 참여기회 확대, 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전년(‘18. 80명) 실적을 초과하여 100명 지원 완료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업방식 개선(거주자의 참여기회 확대, 사업수혜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성과(목표: 200명→실적: 215명) 창출
- **(국산 식재료 소비기반 확충)** 외식업소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량 증대, 비용절감을 위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추진
 -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내실 및 농업과 외식산업 연계 강화**에 기여
 - * 사업 개소수/공동 구매액 : (‘18) 8개소/11억원 → (‘19) 35개소/16억원(예상)
- **(주요행사를 한식 확산의 기회로 활용)**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식 문화의 우수성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 **발효음식문화 포럼** 및 **재외공관**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선(아세안 8개국 예선 우승자) 개최

- (외식업 활성화) 외식수요의 촉진을 통해 외식매출 향상, 외식가격 안정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
 - 동네 맛집 선정업소, 지역별 유명 외식업소, 해외진출 외식기업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외식소비 붐업 유도
 - 5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매출 증가
 - * 농협카드 결제액 기준, '19년 5월 외식업소 이용액은 15,729억원으로 전월 대비 7%,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
- (국제커피협정 가입 추진) 국내외 커피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내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커피협정 가입 추진
 - 소비자 의견조치, 협정문 번역 등 국내 가입절차 착수하는 한편 국내 커피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커피산업 발전방안 논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에 필요한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이 다소 미흡
- 협업과제 발굴이 다소 미흡
- 성과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보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수립에 통계자료,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추진과제 도출 및 연계성 확보
- 협업과제 발굴 수요 측면에서 국내외 소비자 의견수렴 방안 필요
-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과의 폭넓은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
-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우수	· 계획 수립 시 여건 변화와 다양한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함 · 계획수립에 필요한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은 다소 미흡 ·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성과측정에 적합한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자료신뢰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단순 현황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등 해당과제의 지향점을 반영한 결과지표 도출이 미흡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추진일정에 맞게 충실히 진행되고 협의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추진계획에 있어 중도 포기 발생이나 해당기관의 사정으로 일부만 추진된 3건은 거의 완료로 판단됨. ·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협업과제를 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함 · 외식업계, 공공기관, 농업계와 소비자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나, 협업활동의 체계화, 상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목표 대비 실적이 우수하며,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조직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실현, 상용근로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련되므로 가점을 부가함 · 3개의 신규지표 목표치 적극성은 보통으로 설정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법률 제정, 국산 식재료 소비기반 확충 등 효과가 있음 · '19년 농업과 외식산업 연계 실적이 예상치이므로 자료 확보를 통해 실제치를 제시할 필요 · 한식진흥법 제정과 관련 정책의 기반구축, 105톤 이상 쌀과 전통자류 수출 효과 창출함 ·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 견인 이를 다른 외식분야에도 확산해나갈 전략이 필요, 커피 외에도 식음료 산업과 국산 농산물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
4. 환류 노력도	보통	·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도출이 우수함 ·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과의 폭넓은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도 강화할 필요 ·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 논의 대상이 전체 문제점을 포괄하지는 못함 · 지적사항을 적극 대응하고 개선책 마련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통식품 활성화)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소비 확대에 기여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 접점 홍보로 전통식품의 소비 확대 및 인식개선
 - 전통식품의 맛·풍미 개선 등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다양성 추구 및 간편식 식단 등 소스류 소비 증가에 따른 소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우수 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신규 명인 발굴, 보유 기능 전수환경 개선
- (김치산업 육성) 김치 수입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국산 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을 통해 수출 및 국산김치 소비 확대에 기여
 - 김치원료 안정적 원료공급 및 군납, 고속도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김치 사용 확대 추진으로 상품김치 시장 확대
 - * 국내 김치시장 규모(POS매출액) : (‘18) 2,526억원 →(‘19) 3,000억원(잠정)
 - 수입김치의 위생관리 강화 등 수입증가 대응 및 김치의 글로벌 선호도 제고를 통해 수출 증가 및 수출국 다변화
 - * 수출 확대 : (‘12)106백만불 → (‘15) 73 → (‘17) 81 → (‘18) 97 → (‘19) 108(잠정)
 - ** 수출국가 증가 : (‘17) 63개국 → (‘18) 68 → (‘19) 79

- 맛·품질기간 연장 등 종균보급, 김치원료 표준화 및 품질·안전 관리 차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 (전통주산업 육성) 탁주의 종량제 전환 등 규제개선으로 소비·유통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전통주 매출 확대 기대
 - 네이버 온라인 콘텐츠 추가 개발(100개) 및 홍보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 전통주 판매 확대
 - * '18년 6,117백만원 → '19년 34,100백만원(잠정)
 - 찾아가는 양조장 대상 관광상품 개발로 방문객 증가 및 매출 확대에 기여
 - * '18년 33만명, 445억원 → '19년 35만명, 448억원(잠정)
 - 2030 젊은 소비층 및 외국인 방문객 참여 유도로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방문객 증가 및 매출액 급증
 - * '18년 : 13,500명, 157백만원 → '19년 : 14,350명, 16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 및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계획수립을 위한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분기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음 · 성과지표는 결과중심의 지표로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다만, 보다 적극적인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 수립된 일정에 대해 대부분 완료됨(1건 미완수) · 관련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 실적이 우수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김치 수출액 증가율 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성이 낮음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대체적으로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전통발효식품의 매출증대, 수출확대, 소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농가 부가가치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원료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 또는 정량적 성과의 확인이 어렵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환류 노력도	보통	·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문제점 발굴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이 마련됨 · 정책 수요자인 식품업계 외에 원료생산자인 농업인, 수요측면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수출 통합조직·마케팅 등을 통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 수출 통합조직 규모 및 품목 확대, 품목별 수출 증가를 통해 신선 품목 수출 확대와 공동 마케팅, R&D 등 경쟁력 강화
 - * 조직화 수준 증가('18년→'19년) : (파프리카) 총 회원사 352→392(농가 370, 업체 22), (버섯) 68→130(92, 38)
- 판촉·미래클 등 지원사업을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가 소득 기여도가 큰 신선농산물을 우선 선정하여 판촉 지원확대
 - '미래클 K-Food 프로젝트'를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 발굴해 전년대비 신선수출품목수 100% 증가
 - * 신선품목 : ('18) 5품목 → ('19) 10품목(아스파라거스, 꼬꼬마양배추 등 추가 선정)
 - * 총 25개 품목 : 당조고추, 표고버섯 등 기존 18개 품목 및 '19년 신규지정 7개 품목 (포도즙, 저온압착 생참기름 생들기름, 꼬꼬마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단호박, 그린키위, 멜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기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적시에 대응 하였으나, 향후 정책개선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까지 고민 필요
- 수출물류비 중단에 대비하여 수출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 필요
- 성과지표가 과제의 성과 측정에 적합한 대표성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대책 마련
- 대표적인 성과지표 및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발굴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등 반영 여부 평가는 우수하다고 판단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한 추진계획 수립과 분기별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 - 「맞춤형 농식품 수출지원」 과제 추진 시 분기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성과지표인 ‘수출전문단지 육성(개소수)’과 ‘자금지원업체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국가수(국가)’와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는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 · 과제와 연계하여 수출단지 확대, 수출실적 등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
2. 집행의 적절성	우수	· 13개의 추진계획중 성과 관리 시행 계획상 과제별 11개 추진 계획 준수 · '한국 농식품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의회'에 대한 협업 과제 발굴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 지난3개년의평균실적치를낼수없는지표인 수출전문단지 육성(개소수)와 자금지원업체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은 적극성을 보통으로설정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에 해당 ·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 · 수출통합조직 활성화(주요 결과) 등의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시된 것이 부족함. 종합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은 우수로 평가
4. 환류 노력도	보통	· 점검회의, 간담회,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내외부 전문가, 관계기관, 농가 및 수출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전년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시 평가위원의 수출업체 중심 정책에서 생산자 조직화 강화 방안 필요의 지적 사항에 대한 전문단지 물류비 인센티브 일부를 통합조직으로 전환하고 품질 관리 등 역할 수행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지원 차등화 · 의견수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을 감안하여 우수로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출 검역협상 타결) 對 중국 파프리카·사료제품, 캐나다 삼계탕, 멕시코 입병버섯, 대만 참다래·유제품·계란류·식용젤라틴, 미국 파프리카 등 11개국 18건 협상 타결로 목표(15건) 대비 120% 달성
 - 해외 新시장 개척 등 우리 농식품 수출 가능국가 확대 및 검역요건 완화 등으로 국내 농식품 시장 활성화, 수출 확대 정책에 관한 신뢰 제고 및 업계 수출 동기 부여
- (안정적 수출) 쇠고기 등 축산물 주요 수출국인 홍콩과 국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검역조건으로 합의(돼지고기 '14.9월, 쇠고기 '15.11월)
 - 이에 국내 구제역('19.1.29), 아프리카돼지열병('19.9.17)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역(시·도) 이외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지속 수출
- (수출 의지 향상)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 가능 국가가 확대되어 국내 축산물 수출업체 증가 및 업계의 수출 관심도·의지 향상
 - * 국내 축산물 수출작업장 수(개소) : ('15)132→('16)144→('17)182→('18)302→('19)313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출 협의회, 협업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각각에서 제기된 상황에 대한 협의 실적 및 결과가 다소 미흡
- 현재의 성과지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향후 다른 지표개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실 있는 전략적 검역협상 중장기 계획 수립
- 협상타결은 당년의 성과가 아닌 다년간의 협의결과로 나타남으로 관련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보완 지표의 개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보통	·대내외 여건 및 사례 분석 등 반영 여부 평가는 보통 수준임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한 추진 계획 수립과 분기별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 하여 우수한 수준임 ·성과지표인 ‘수출 검역협상 타결(건)’과 ‘현장 수출 검역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한 수출기여’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는 우수한 수준임 ·현재 지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다른 지표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2. 집행의 적절성	보통	·추진일정을 모두 완수하여 우수한 수준임 ·협의회, 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각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 ·식약처, 해수부 등 협업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은 미흡
3-1.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수출검역협상 타결(건) 지표 목표치는 전년대비 변화가 없으며, 과거 3년 실적평균기준 3-5%사이에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단 ·‘19년 성과목표 15건 대비 18건(120%)의 수출협상을 타결하여 목표 대비 초과달성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신규 시장개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농식품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협상 타결 증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지속적 수출 등 정책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나 우수한 수준임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나 우수한 수준이나, 향후 기대효과에 지난 성과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음 ·수출연구사업단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강화 필요
4. 환류 노력도	우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립된 건의·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수출 협상 및 정책 추진에 반영 ·자체평가 내용 외부지적사항을 발빠르게 개선 ·실적 외에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국내여건이나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존재

4. 자체평가결과 조치 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1-①	○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인력 유입·육성 프로그램 필요 및 지방 협업 필요	○ 사업 성과평가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20.11월)
	○ 성과지표인 “농업교육 전후 역량 향상률” 설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평가에 필요	○ 해당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검토하여 개선 조치('20년도 성과계획서 수립시 반영)
1-1-②	○ '19년 대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확대하고, 타 기관 등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 도모	○ '20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0.1월)
		○ '20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0.2월)
1-1-③	○ 적극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예산확보현황, 농식품펀드 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극적 성과목표치 설정('20년도 성과계획서 수립시 반영)
1-1-④	○ 청년농과 중장년층의 영농 정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20.3분기)
I-2-①	○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국민건강 비용 지출 감소의 선제적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더욱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 필요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 노력('20.12월)
		- 영양플러스사업과의 중복성 검증 및 배제(상시)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홍보('20.3월~12월)
	○ 소비자와 생산자, 양 정책소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친환경 관련 소비시장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T/F 운영('20.12월)
1-2-②	○ 가축분뇨 적정관리 우수사례 홍보, SNS 활용 등이 전 국민적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20.9월)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분뇨 처리지원 등 축산농가 스스로 인식 및 자정활동 추진필요	○ 축산환경개선의 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지속 추진(계속)

1-2-③	○ 컨설턴트 수 양성은 결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 스마트축산 확산 신규 지표 마련('20.4월) * 스마트축산 확산에 따라 사업의 효과 및 정책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 발굴
	○ 협업 성과의 구체적 마련 필요	○ 협업과제 추진 및 구체적 성과 창출('20.11월) * 협의 및 중간 성과에 대해 주기적 확인 추진
1-2-④	○ 유기동물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소 확대 정책이 필요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확대('20) * ('19) 4개소 → ('20) 10개소
I-3-①	○ 스마트팜 육성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 신규 성과지표 발굴('20.2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차별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가 착공 추진(~'20.하)
I-3-②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R&D 코디네이터 지원 건수를 89건에서 30% 증가한 116건으로 상향조정(계획수립시)
		○ SNS 누적 컨설팅 수를 75,000건에서 33% 증가한 100,000건으로 상향조정계획수립시)
I-3-③	○ 계획수립에 있어 외부환경 변화, 관련통계,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지표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이 요구	○ 평가 환류 및 관리 계획 수립('20.1월) -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GSP사업으로 개발된 품종의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 방안이 필요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품목별·국가별 수출 전략 방안 마련('20.3월)
I-3-④	○ 적극성 판단 기준 제시 및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최근 3개년 실적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20년 성과계획 제출 시)
	○ 일부 대표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개선 또는 삭제	○ 대표성이 부족한 곤충식품 매출액(상위 10개 업체) 성과지표 삭제('20년 성과계획제출 시)
I-3-⑤	○ 본 과제의 상위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 신규사업으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추진('20.1월)
	○ 차세대 첨단 농기계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자율주행 트랙터, 밭농업용 지능형 로봇, 토마토 수확 로봇 등 R&D 지원('20년 연중, 174억원)
1-3-⑥	○ 농업인 소득증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 달성 농촌태양광 발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성과 제시 필요	○ 농촌태양광 주민참여 정책연구('19.12.~'20.4.)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마련('20.4월)

1-4-①	○ 결과지표 성격의 성과지표로 개선	○ 외부 전문가(KREI 등)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설정 관련 자문('20.2월)
1-4-②	○ 협업체계는 구축되어있으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성과부족	○ 협업과제 추진 및 구체적인 성과창출(연중)
	○ 실제 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대한 성과지표 필요	○ 성과지표의 적극적인 목표설정 및 진출기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선·개발 노력(연중)
	○ 목표치는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치와 유사하여 보통으로 판단	
	○ 활동 기업수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의 추가 수행 요구	○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현장 점검 횟수를 증가하여 설문조사 시행 등 진출 기업 의견수렴(연중)
1-4-③	○ 수혜지역과 인근 비수혜지역간 소득비교 실시	○ 농경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차기 성과계획서 제출시 반영('20년 이후)
1-4-④	○ 결과지표의 성과지표 발굴 필요	○ 기존 성과지표 외 추가 지표 보완('20.3월)
2-1-①	○ 쌀 공급과잉 지속될 전망 하에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 직불제 개편에 따른 쌀시장 충격 및 풍흉에 따른 생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 상황별 쌀 격리·방출 및 생산조정 등 법제화('20.상반기)
		○ 공익 직불제 개편·정착, 생산조정제, 주요 양곡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양곡 전반의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 검토 및 마련('20.하반기)
	○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쌀 소비촉진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20년 쌀소비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20.3월) ○ 쌀가공품 홍보 강화,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개편 방안 추진('20.3월~)
2-1-②	○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수급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 추진 필요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추진(1~7월) ○ '20년 양곡류 TRQ 운용 및 '21년 증량 계획 수립(연중) ○ 밀 생산-유통-소비 관리체계 구축(2~9월) ○ 논타작물재배단지 조성(연중) ○ 잡곡 소비활성화 추진(연중) ○ 주요 품목(콩, 밀, 감자) 수급안정 추진(연중)
2-1-③	○ 현장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 설문, 워크숍,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정책효과가 우수한 개선방안 도출 추진(연중)
2-2-①	○ 가축재해보험 최근 3년 가입률 평균이 92.8%로 높아 가입정체 예상됨. 가입률 상향보다는 사업 내실화 필요 - 가입조건 및 국비지원조건 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배포('20.2월)

2-2-②	○ 밭 생산기반 고도화 노력 필요	○ 밭기반정비사업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물복지소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 마련('20.12월)
	○ 과학적 물 관리를 통한 물 공급 서비스 제고 및 재해대비 능력 강화	○ 농촌용수관리자동화사업 추진을 통해 중앙관측소를 통한 수리시설 운전 자동화, 물 흐름에 따른 용수 관리 등 추진 ○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집중호우 등 배수장 수위 급상승시 배수장 긴급자동운전 시스템 도입('20) *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929개소 중 자동운전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입출·수중 배수펌프장 619개소 대상
2-2-③	○ ASF 등 가축전염병의 문제점 분석은 적절하나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 보완 필요	○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위한 “방역·축산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20.3월)
2-2-④	○ 관리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지표(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돼지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 - '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검토·반영('20.2월) ○ 상향된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 강화(소·돼지 항체검사 확대) - '20년도 항체검사 확대를 위한 혈청예찰 세부 계획 수립('20.1월) - '20년 연중 백신항체 검사(계속)
	○ 경제 및 사회적 피해가 큰 구제역의 산발적 발생 근절을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구제역 발생 근절을 위한 “방역·축산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20.3월)
2-2-⑤	○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사육제한 관련 농가 의견수렴 등 세밀한 대책 추진	○ 동절기 대비 소독시설 등 현장점검, 사육제한 관련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추진(~'20.10월)
2-3-①	○ 해당과제 성과달성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차등하여 설정	○ 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도를 감안한 성과지표 가중치 차등 적용('20.4월)
	○ 지역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로컬푸드 지수’ 측정·발표('20.6월)
2-3-②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규모 확대 필요	○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물량 확대·운영(~'20.12월)
2-3-③	○ 산란계, 오리는 사육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 관측 중심	○ 종축의 입식단계에서 미래 출하시점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육·도축마릿수 정보 제공('20.6월)

	수급조절협회의 형식적 운영과 협의 내용에 대한 실행 부족	- 축산관측 발간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협의회 정례화(연 2회 이상) 및 협의회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자조금 사업 연계 - 생산자단체와 자조금을 중심으로 관측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농가단위 문자 발송, 밴드 등으로 전파
2-3-④	- 정책변화 등 고려하여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과제 수행에 있어 섬세한 일정 관리가 필요	- 정책에 대해 다양한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 정비('20.4월) * '19년으로 완료되었거나 '20년 이후 필요성이 감소한 성과지표는 새로운 지표로 대체 등 - 세부과제별 일정 구성을 정비하여 집행의 적절성 제고('20.4월)
2-3-⑤	시설원예 현대화에 따른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지표 보완	시설원예 보급 실적과 연계된 농산물 품목 분류 및 생산 지표 기준 마련('20.11월)
2-3-⑥	'착한꽃집'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화훼 소비 촉진·홍보를 위한 관련 전문가 회의체 구성	- 착한꽃집'의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화훼 품질관리 강화, 소비 활성화 추진('20.9월) - 화훼 소비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 구성·운영(연중)
2-4-①	-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시행방안 마련 - 공익직불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 발굴	-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수립('20.5월) - 공익직불제 성과평가체계 마련('20.12월)
2-4-②	- 농협 관련 법 개정 필요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등	-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의결 및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대응 강화('20.4월) '20년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법 개정의 지표 달성 목표를 '농협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수준으로 조정 -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추진('20년 상반기까지)
2-4-③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의 목표 설정을 3개년 실적평균보다 높게 설정 필요 - FTA 직접피해지원 관련 상담안내 만족도 세분화 필요	'20년도 주요정책 성과관리시행 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20.4월) '20년도 만족도 조사 시 10점 척도 설문지 사용('20.10.~12월)
3-1-①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사업대상자(농촌지역 주민 등)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추가 개발('20. 상반기)

	○ 농촌빈집정비사업과 함께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사업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만족도를 사업성과지표로 활용('20. 상반기)
3-1-②	○ 맞춤형 복지 강화 과제 지표 보완 필요 - 농촌 특화형 복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필요 - 농촌 복지 시책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 설정 필요 - 사회적농업 지표는 과정적 지표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선 필요	○ '20년부터 농촌 특화형 복지 관련 지표 추가 등 개선 추진('20. 상반기 중)
	○ 영농후계장학생 지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 필요	○ 졸업 후 의무 조항이 없는 영농후계장학금 지원 규모 축소,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를 부여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 규모 확대('20.2월)
3-1-③	○ 농촌형 교통모델 성과를 보다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성과관리 방안 모색, 성과지표 보완 검토 필요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보완 성과지표 발굴('20.4월)
	○ 성과 달성도 실적이 분기별 실적치를 감안한 예상치로, 추후 최종 실적치를 반영하여 재평정 필요	○ 사업 특성상 지자체(군)에서 12월까지 사업 종료 후 최종 실적치 집계('20.2월)
3-2-①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대책 마련	○ 제4차('20~'24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실무위원회포함) 개최 추진('20.6월)
3-2-②	○ 마을만들기 등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표 보완 필요	○ 지역주민 참여의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20.3월)
3-3-①	○ 지표설정 시 과제 대표성을 반영하고, 목표치의 적극성을 높일 필요	○ 성과지표 변경 ('20.4월)
	○ 다양한 기관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업 확대 필요	○ 기관간 협업 등을 포함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20.3월)
3-3-②	○ 성과지표 보완필요	○ 성과지표 변경 ('20.4월)
	○ 사업 추진시 최근의 농촌여건 , 변화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필요	○ 사업계획 수립 시 새로운 수요변화 분석 및 정책환류 등을 포함한 농촌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20.2월)
3-3-③	○ 교육 수료자 만족도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을 권장	○ '21년도 성과계획서에 만족도 가중치 상향 반영('20.4월)

4-1-①	○ 교육의 정성적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식생활교육 체험·확산 성과 평가에 적합한 지표 개발('20.11월) * 식생활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 연구 등을 통해 성과지표 개선 방안 마련
	○ 소비자가 희망하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발굴 필요	○ 지역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식생활교육·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20.11월) *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중 자율사업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
4-1-②	○ 농약 PLS 정착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 부적합 발생 지역·품목 중심 사전 컨설팅 등 농약 안전사용 사전 지도 추진(830천명, 연중) ○ 소면적 재배작물 직권등록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연중)
	○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향상	○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연중)
4-2-①	○ 국산농산물 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 필요	○ 국산 농산물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19.12월)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활력 제고대책'의 세부이행계획 마련·시행(연내)
	○ 상생협력 경진대회와 같이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한 협업노력 필요	○ 기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 발굴(연중 계속)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 필요	○ 과거실적 평균치 대비 상향된 적극적 목표치 설정('20.상반기)
	○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사용 체계 확보 필요	○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확대 방안 마련('20.상반기)
	○ 농업인, 생산자조직의 의견수렴 확대 필요	○ 정책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현장점검, 회의 등 개최 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동시에 참여 조치(연중 계속)
4-2-②	○ 식음료 산업과 국산농산물의 연계 방안 마련	○ 국산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커피전문점협의체 구성('20.1분기)
		○ 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반기 1회)
4-2-③	○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 및 적극적 목표치 설정 ○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필요	○ 매출액 이외에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시범 측정 실시(계획수립시) ○ 목표치 설정시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추진

4-3-①	○ 대표적인 맞춤형 농식품 수출 확대 성과지표 발굴	○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성과지표 발굴 추진('20.6월)
	○ 수출물류비 중단 대비 수출기반 조성 필요 ○ 정책개선의 실효성과 파급효과 까지 반영	○ 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 조성, 통합조직 중점 지원 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4-3-②	○ 수출 협의회,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각각에서 제기된 상황에 대한 협의 실적 및 결과가 다소 미흡	○ 전략적 검역협상 중장기 계획 수립('20.6월)
	○ 현재 지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다른 지표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 '20년 성과 지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표 개발('20.2월)

[붙임]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6조)

□ 핵심기능

지속가능한 농산업

-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
-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기술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으로 경쟁력을 강화
- 전략적 협상과 국제농업 협력강화로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균형 도모로 식량수급의 안정성 확보
- 재해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로 국민이익 보호
- 직불제 개편·확충 등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살고 싶은 복지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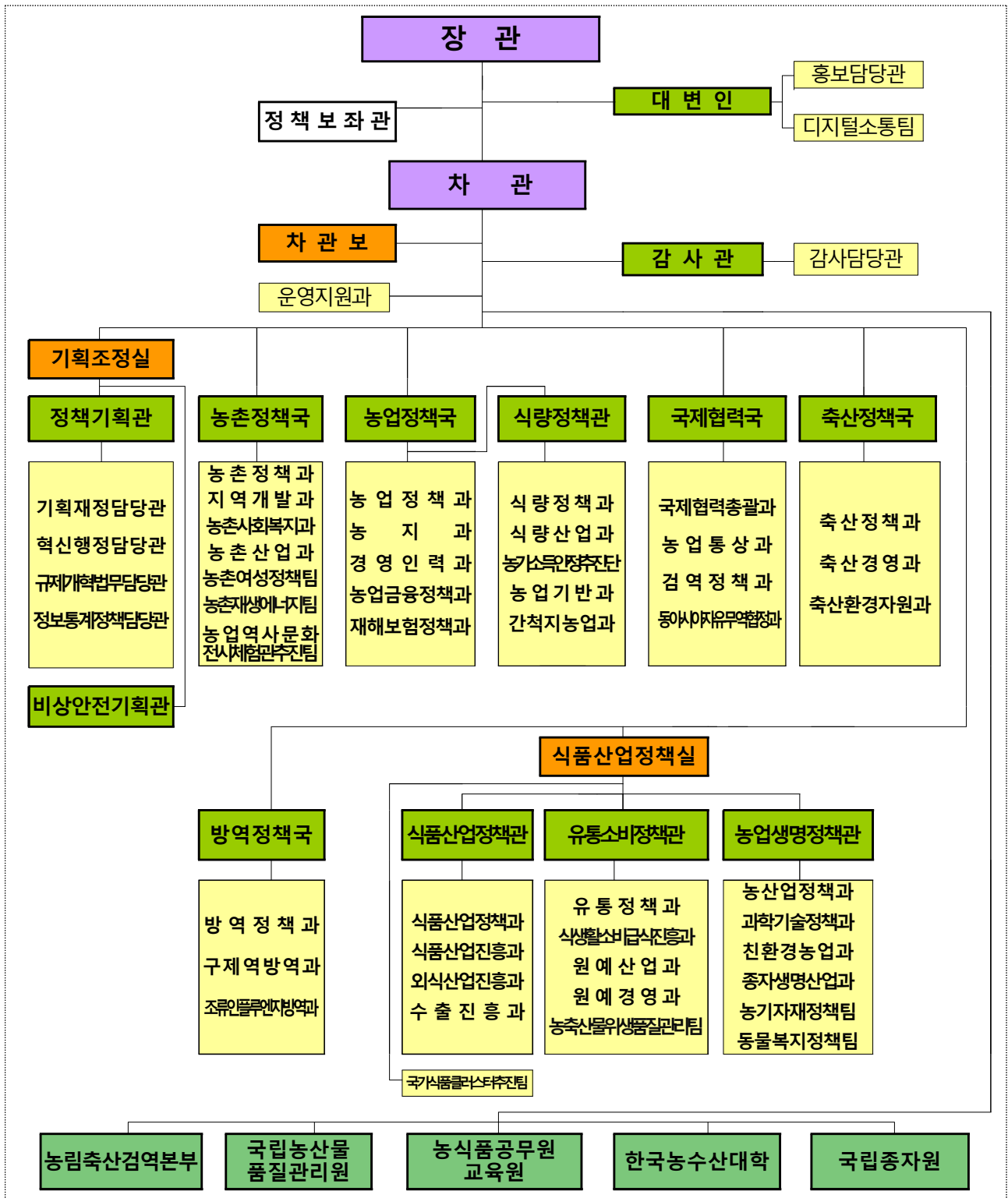
- 농촌공간 조성 및 맞춤형 복지강화를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농업·농촌 실현
- 농업활동과 연계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식품·외식산업 성장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 비관세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 조직도

□ 1차관보, 2실, 5국, 8관, 51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



2. 전략적 목표체계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성과지표 1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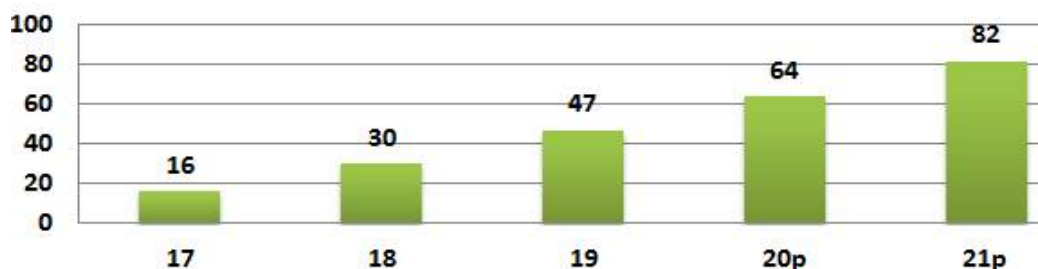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 개념 :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 생산과 유통·가공·체험·수출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육성 거점으로서 조성 지원
-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생산자단체 등
- 측정방법 : 친환경 농업지구 선정 결과

□ ‘19년 측정결과

- ‘19년도 친환경농업 지구(신규·보완) 17개소를 선정, ‘17년 이후 누계 총 47개소를 조성하여 당초 목표치인 46개소를 초과 달성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누계, 개소)



- 친환경 재배(벼, 채소류, 고구마, 녹차 등)를 대규모로 실천하려는 생산자단체 대상 유통·가공시설, 판매장 등 17개소 조성 지원

* ‘19년 신규 11개소(강원 1, 충북 1, 전남 5, 경북 1, 경남 1, 제주 2), 보완 6개소(강원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경남 1)

□ 성과분석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환경 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농업계의 대응 능력은 부족
 - **환경보전, 삶터·쉼터의 제공, 안전식품 공급** 등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 증가
 - *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16, 국민의식조사) : **자연환경보전 21.7%, 관광·휴식장소 제공 17.0, 안전식품 공급 16.5, 전통문화 계승 14.8** 등
 - 반면, **고투입 농법***으로 인한 환경 부담 가중,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등으로 농업·농촌환경에 대한 관리 미흡
 - * 한국의 질소수지는 OECD 평균의 3.4배(1위), 인 수지는 8.6배(2위)('15)
 - 사람·환경·지역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요구 증대에 따라 정부는 기존 생산주의 농정의 전환을 추진 중

⇒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촌 주민 대상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전활동 실천 유도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공익적 기능 창출 필요**

-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확대로 **유기 재배면적 증가**('18: 24,666ha → '19.12: 29,671) 등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부담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소규모·분산된 생산·유통구조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지속적 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을 통해 **생산기반 및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친환경농업의 집산화 지원**
 - *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 역량강화·홍보 등 지원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19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8.12)
 - (우대조건 추가)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지자체·생산자 단체를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여 정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 지자체 푸드플랜 확산,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제도정착 등

- (생산자단체 운영실적 요건 완화) 작목반 형태의 생산자조직이 성장하여 법인화된 단체에 대하여 지원요건 완화
 - * (기존)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개선)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명확화) 자금 사용은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품목·계획에 따라 부대조건 하 허용
- (사업신청·선정시기 조정) 다양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시기 조정
 - * (기존) 사업신청 접수(전년도 1월), 사업신청(전년도 2~3월) → (개선) 사업신청 접수(전년도 4월), 사업신청(전년도 5~6월)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친환경 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 * 친환경농업지구('17~, 누계) : ('20) 64개소 → ('21) 82 → ('22) 100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성과 제고 및 조기 집행 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
 - * 사업 유형별로 제한된 지원 인프라로 인한 사업 확대 제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 구분에 따른 지원제한 폐지, 지원 한도 일원화(10~20억원 → 10억원) 등
 - ** 친환경농산물 산지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광역단위(시·도) 생산자단체 대상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 농업인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추진('20년 25개소)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시범 도입('20년) 및 본사업화 추진 ('21년~) 등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견인에 기여

성과지표 2

스마트농업 확산 지수(Is)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시설원예, 축산분야 스마트팜 보급에 따른 확산지수를 평가하는 지수로써,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
- 조사기관 : 농식품부
- 조사대상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 조사방법 : 당해연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 실적을 조사(보급 또는 사업자 선정)
- 측정산식 : $0.5(\text{당해연도 스마트팜 면적}/18\text{년 스마트팜 면적}) + 0.5(\text{당해연도 스마트축사 수}/18\text{년 스마트축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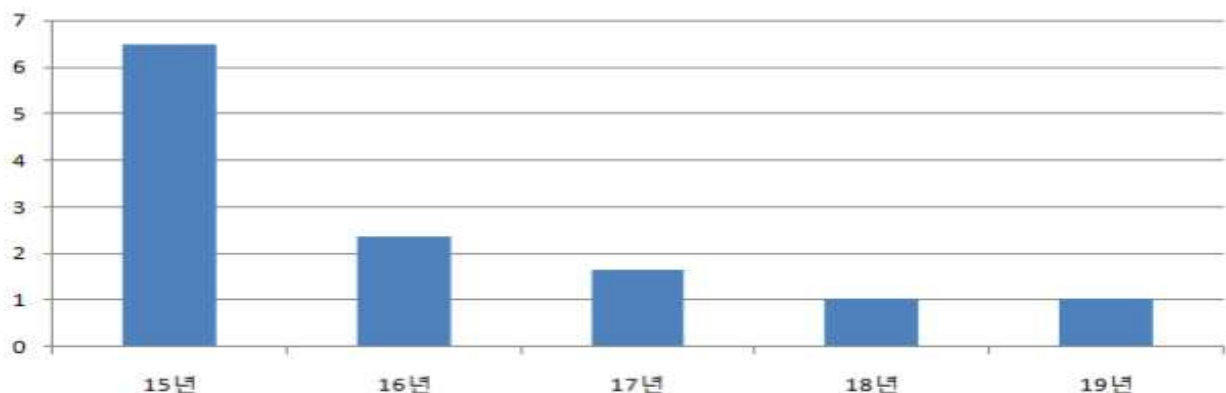
□ '19년 측정결과

- '19년 스마트팜 보급실적(누계)은 시설원예 5,383ha, 축산 2,390호로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

* '19년 스마트팜 보급 목표(누계) : 시설원예 5,017ha, 축산 2,390호

- 스마트팜 보급은 '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보급확산 속도에 힘입어 스마트농업 확산지수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스마트 농업지수



□ 성과분석

- 시장 개방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로 평가 됨
- 스마트팜 교육·홍보·컨설팅 등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이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과 ICT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추진
 - 스마트팜 운영성과를 연구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였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도 지원
 - * 스마트팜 도입 후 생산량 31.06%↑, 자가노동시간 5.26%↓('18년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 권역별 현장지원센터(기술원·기술센터, '19년 12개소) 확대 운영을 통한 교육·컨설팅·A/S 등을 통해 현장지원체계를 강화
- 기자재 표준화, 빅데이터, R&D 등으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팜의 국산화율 제고 등 산업생태계 조성기반 마련에 노력
 - 스마트팜 장비 간 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기자재 국가표준을 제정('18년 시설원에 22종)
 -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은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기체감서비스를 추진(딸기)
-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 수립·발표('18.4월, 경장)하였으며, VIP주재 혁신성장 보고대회('18.5)에서 스마트팜 정책 성과사례 발표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계획도 보고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스마트팜은 우리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2년까지 온실 7,000ha, 축사 5,750호를 목표로 추진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2년
스마트 온실(ha, 누계)	405	769	1,912	4,010	4,900	5,383	7,000
스마트 축사(호, 누계)	23	181	430	801	1,425	2,390	5,750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전반의 스마트화, 젊고 유능한 청년인력 육성, 스마트팜 산업 인프라 확충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스마트팜 보급은 시설원예, 축산분야에 치중한 측면이 있으며, 노지·수직형농장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유입 미흡과 선진국과 기술격차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해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계획
(’22년까지 4개소 조성)
-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및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계획
(’20년 예산 8억원)
- 노지, 수직형농장 등 스마트팜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
- 또한, 스마트팜 추진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 기업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끊임없이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

(전략목표 2)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업·농촌의 경제활력 창출에 기여한다.

성과지표 1

농가소득액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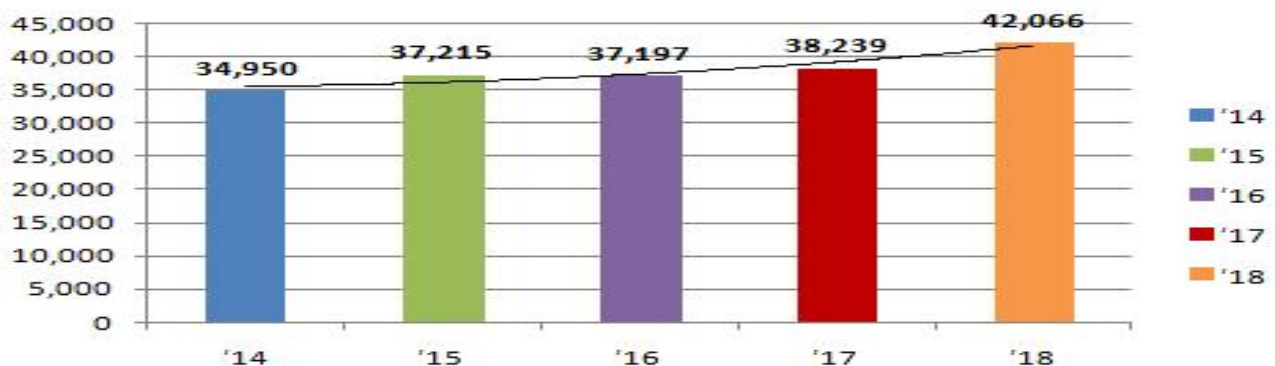
〈 지표명 〉

- 농가소득액 개념
 -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소득액으로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경상적인 것),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 조사기관 :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전년도 농가소득을 차년도 5월 발표)
- 조사대상 : 전국 3,000 표본농가(가구원 2인 이상 2,900농가, 1인 100농가)
 - *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① 10a 이상 경작, ② 농축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③ 조사기준 시점 120만원 이상 가축 사육 농가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19년 측정결과

- 2018년 농가소득은 평균 42,066천원으로 목표치(39,488천원) 대비 106.5% 초과 달성
-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은 연 평균 3.5%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역대 최초 4,000만원 돌파

* 농가소득 : ('09) 3,081만원 → ('12) 3,103 → ('16) 3,720 → ('17) 3,824 → ('18) 4,207



□ 성과분석

- 이러한 성과는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추진 결과로 평가
 - 정부는 생산조정과 소비 촉진으로 쌀 수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농산물 전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등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를 추진
 - 또한, 직불금 단가 인상, 재해 복구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강화 등 농업인 소득·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
- 그 결과, 쌀값 안정, 가축질병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8.6% 증가('17: 1,005만원→'18: 1,292)
 -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상승*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화
 - * 수확기 산지 쌀값: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 * AI 발생 건수: ('16/'17) 383건 → ('17/'18) 22건 → ('18/'19) 0건
- 또한, 직불금 단가 인상*(ha당 5~20만원), 농업인 연금 급여액 증가 등 농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11.1% 증가('17: 890만원→'18: 989)
 - * 밭고정/조건불리/친환경직불금(만원/ha): ('17) 45 → ('18) 50 / ('17) 농지 55, 초지 30 → ('18) 60, 35 / ('17) 유기 60~120, 무농약 40~100 → ('18) 70~140, 40~120
 - * 농업인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17) 386천 원/월 → ('18) 399천 원/월
- 다만, 농업의 전문화·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18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은 11.1배 인 것으로 나타남
 - * 농가소득 5분위 배율: ('09) 8.9 → ('12) 12.4 → ('15) 9.5 → ('17) 9.4 → ('18) 11.1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생산 기반 중심 투자 등 경쟁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소농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 로컬푸드 활성화 등 중소농가의 판로를 확충하고, 농촌관광 및 농식품 가공 등을 통한 농촌 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 특히, 금년부터 정부는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 과거보다 상향된 금액을 지급하여 중소농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
-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20년 농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5%가량 증가할 전망 예측(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주경제

2020년 01월 22일 수요일 018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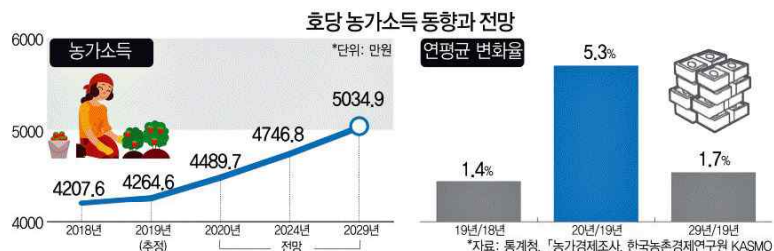
올해 농가소득 4490만원...작년보다 5.3% 증가

농경연 "공익형 직불제 도입 효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올해 농가 소득이 5%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 전망 2020'에 따르면 올해 농업 생산액은 50조438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50조4280억원·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배업 생산액은 작년보다 0.4% 감소한 30조 57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곡물류는 쌀·감자 생산액 증가로 1.3% 늘어나는 반면, 채소류는 가을작형 엽근채소 가격 하락과 마늘·양파 생산량 감소로 3.7%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축산업+양잠업) 생산액은 19조8660억원으로 작년 대비 0.7% 증가할 전망이다. 한육우(0.7%)·돼지(0.2%)·계란(3.8%)·오리(5.3%) 등은 늘지만, 닭(2.1%)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농가 소득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4490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 이전소득은 작년보다 15.2% 증가한 1144만원



을 기록할 전망이다. 농업소득은 1.4% 증가한 1295만원으로 추정된다.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2.9%, 1.9%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1.5%) 상승과 노임(2.8%)·임차료(1.1%) 증가로 농업 구입 가격은 작년보다 1.2%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 판매 가격은 채소(4.5%), 과일(3.2%) 가격 상승으로 0.8%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 인구는 작년보다 1.5% 감소한 224만명, 농

가 호수는 0.7% 줄어든 100만호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1년 전보다 0.7% 상승한 46.2%를 기록, 농촌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귀농·귀촌에 따른 증가세가 이어져 작년보다 1.0% 늘어난 141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지 면적과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0.6% 감소한 158만ha, 164만ha로 예상된다. 농가 인구당 경지 면적은 작년 대비 1.1% 증가한 70.4a를 기록할 전망이다.

홍성환 기자

성과지표 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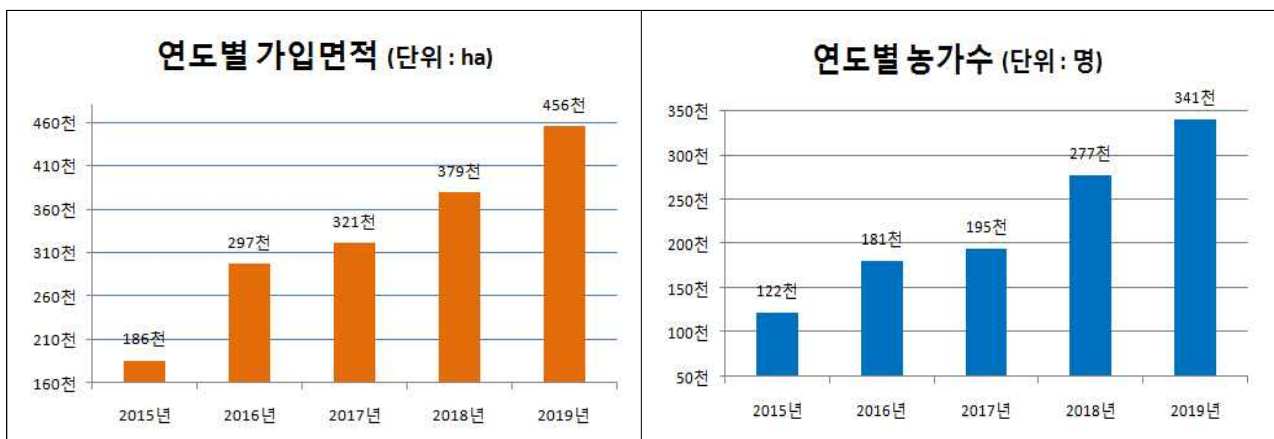
- 개념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가입실적
- 조사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대상
- 조사방법 : 보험가입실적 분석
- 측정산식 : 당해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총 누계면적 / 전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면적

□ '19년 측정결과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33.1%) 5.8%p 상승한 38.9%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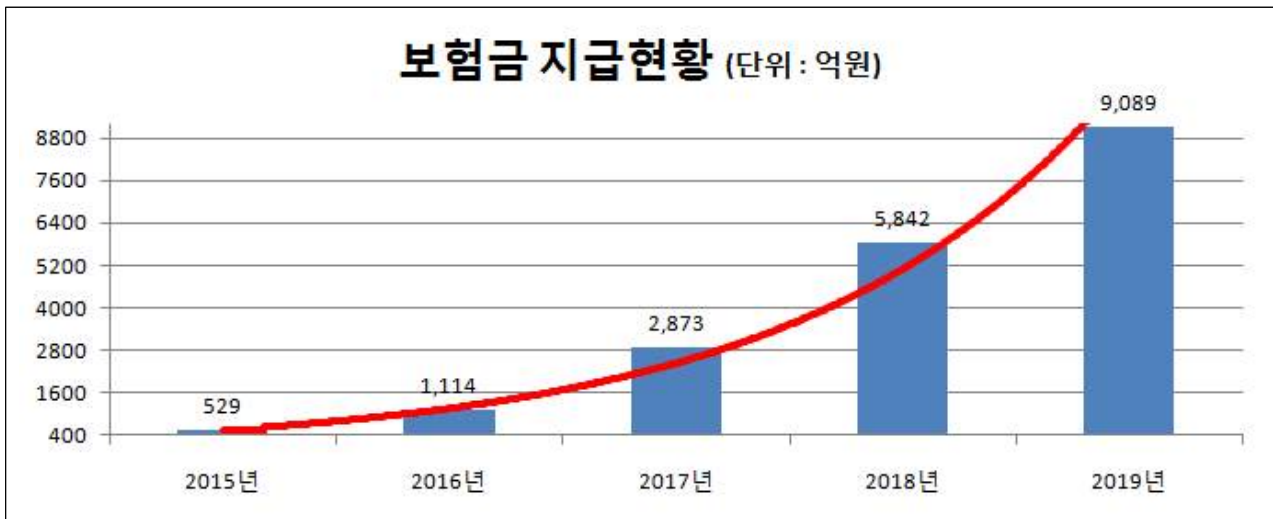
- 가입면적은 전년대비 20.7% 상승한 456천ha 가입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가입면적 : ('18) 379천ha → ('19) 456천ha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양상 다양화, 발생빈도 증가로 농업분야 피해가 높아,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

- '19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97,941ha에 피해가 발생
 - * '19년 : 태풍 호우(80,843ha), 이상저온(7,378ha), 서리·저온(7,211ha), 고온(679ha), 우박·대설등(1,830ha)
- '18년 5,842억원 대비 55.6% 증가한 9,089억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영농복귀에 기여
 - * '19년 보험금 : 사과 2,961억, 배 955, 벼 2,400, 시설 및 시설작물 996 등



□ 성과분석

- 농식품부는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주도 정책보험을 운영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 >	
◆ 사례 1) 강원 정선, 배추, 우박	
- 고랭지 배추 35,640㎡를 경작하는 송○○씨는 보험료 342만원 중에서 43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 를 내고 가입금액 6,771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 우박 피해를 입어 보험금 2,685만원 을 지급 받음	
◆ 사례 2) 강원 평창, 무, 폭염	
- 무 10,604㎡를 경작하는 주○○씨는 보험료 94만원 중에서 11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 를 내고 가입금액 1,908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 폭염 피해를 입어 보험금 567만원 을 지급 받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지만 **인수제한되는 품종**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정책보험을 통한 농업여건 안정이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총채벼, 사료용 옥수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봄감자 등 인수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각지대를 완화

- 재해보험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명회개최(2월), 보험가입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10월), 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재해보험 미도입 품목 주요재배지역을 방문*하여 현장밀착홍보를 실시

* 콩(3.7), 사과대추(4.11), 벼(6.3), 메밀(7.25) 등 현장방문 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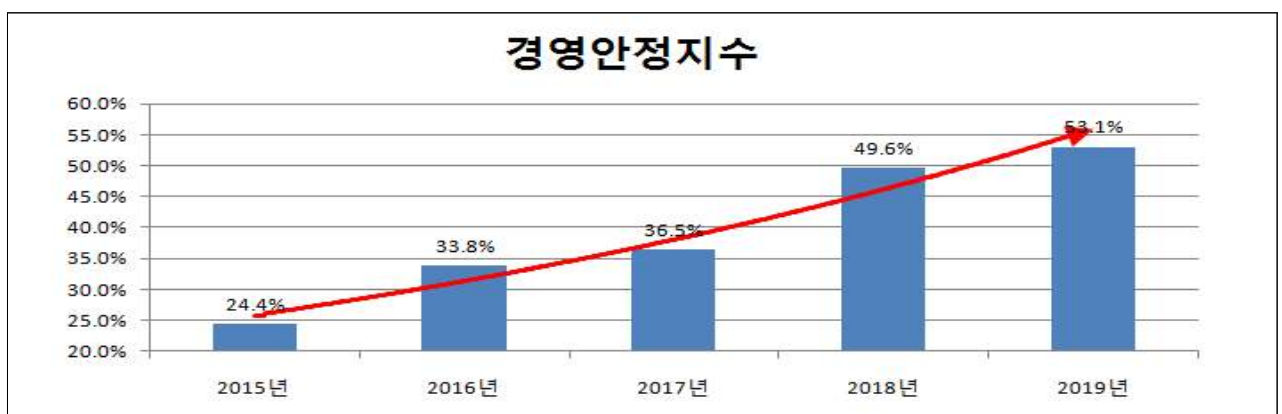
- 과수 일소피해 등 특약의 주계약 전환, 논콩 보장수준 확대(밭콩의 1.1배 수확량 인정), 벼 병충해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추가 등 보장강화를 통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실시

- 또한, 정책보험을 통한 재해대응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업·농촌의 경제활력을 창출

- 최근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림업 생산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경영안정지수는 53.1%로 전년대비 3.5%p 증가

* 보험가입금액/전년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농림업 생산액 : ('15) 24.4% → ('16) 33.8 → ('17) 36.5 → ('18) 49.6 → ('19)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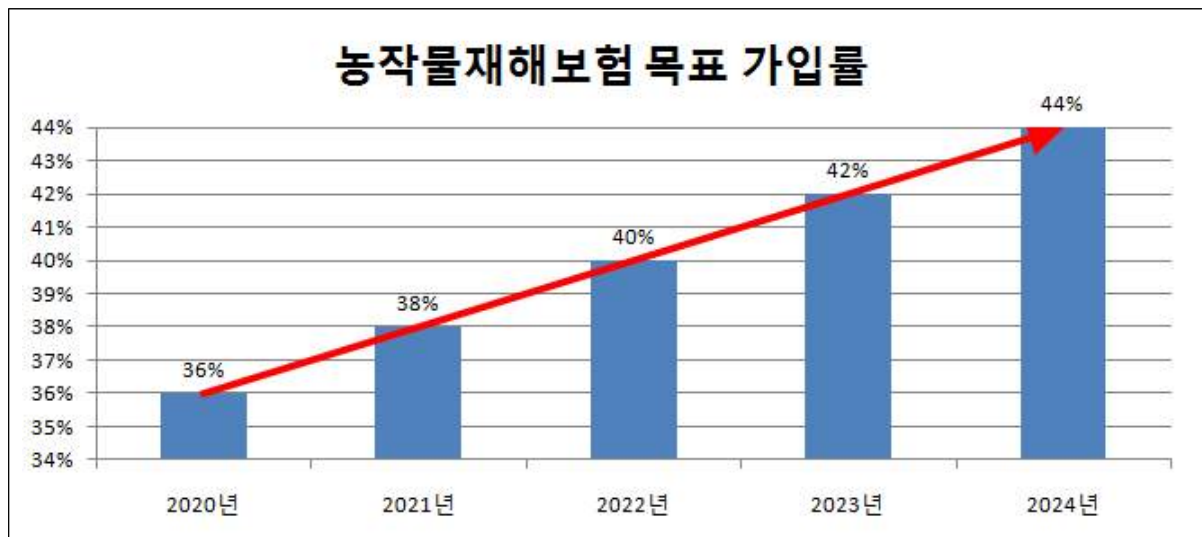


- 또한, '19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손보상(9,089억원 지급)으로 재해피해 농가(194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19년('01~'19)간 173만 농가가 3조 2,590억원(농가부담 7,10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57만여 농가가 농가부담액의 약 4.4배인 3조 1,46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 재해보험제도는 일방적인 정부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산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2024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4% 달성을 목표로 자연재해대응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
 - * 신규도입품목 : ('20) 팔,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 또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자연재해대응력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지속 추진
 - * 가입률 목표 : ('20) 36% → ('21) 38 → ('22) 40 → ('23) 42 → ('24) 44

(전략목표 3)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을 건설한다.

성과지표

농촌생활 만족도

□ 성과지표 개요

〈 농촌생활 만족도 〉

- 개념 : 농촌 주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
 - 통계명 :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
 - 조사기관 및 조사체계 : 농촌진흥청, 5년 1주기
 - 조사대상 : 전국 농어촌 4,000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측정산식 : $\Sigma[(\text{농촌생활 만족도}-1) \times 25] \div \text{응답자 수}$
 - 통계공표 : 조사 익년
- ☞ 조사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의 기초자료임

* (법적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조사체계 : 5년 1주기

- 1년차 종합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구분	조사부문		조사년도		조사대상
			'13~'17	'18~'22	
종합조사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가구원 정보 및 생활 전반 (공통 조사 항목)	2013	2018	농어촌 2,800, 도시 1,200가구
부문별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2014	2019	농어촌 4,000가구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활동, 교육		2015	2020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16	2021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2017	2022	

□ 2019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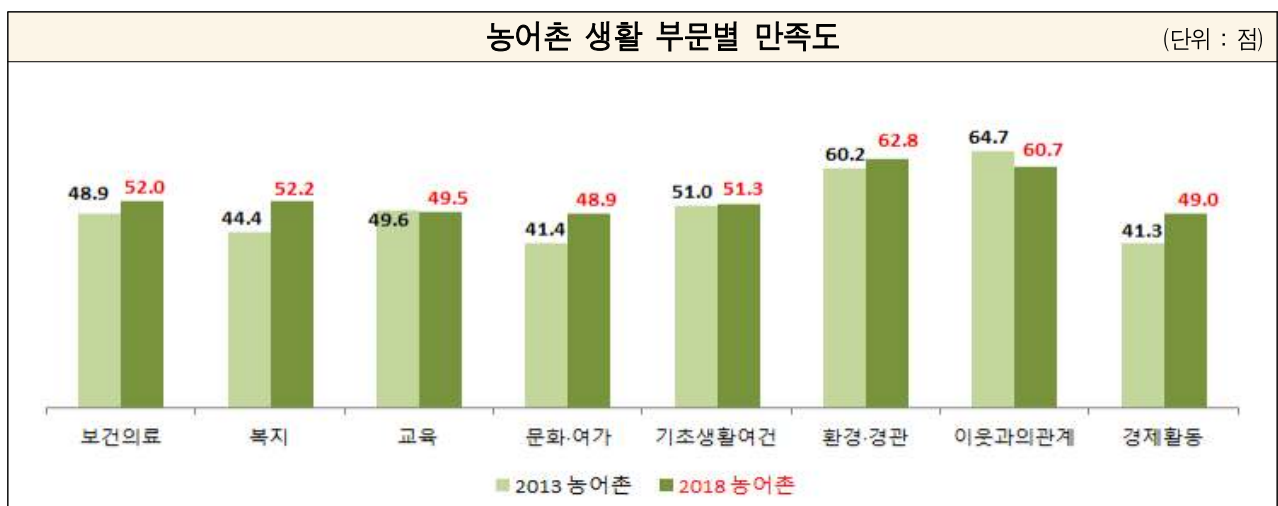
○ 「농촌생활 만족도」의 2019년 측정결과

전략목표 성과지표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
③ 농촌생활 만족도 (점)	56.8	55.8	

- 2019년도 실적치는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농어촌 주민들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농촌생활 만족도'는 55.8점으로 2015년보다 5.8점 높아졌음

* ('15) 50.0 → ('16) 55.4 → ('17) 52.6 → ('18) 58.3 → ('19) 55.8

-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수준 만족도는 52.2점으로 5년 전보다 7.8점 높아졌음
-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수준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 활동(7.7점), 문화·여가(7.5점), 보건의료(3.1점), 환경·경관(2.6점) 순으로 상승폭을 보였음
- 농어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환경·경관(62.8점)과 이웃과의 관계(60.7점)였음



□ 성과분석

- 농촌의 중심거점(읍면 소재지)에 보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거점지역에서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 *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및 마을만들기 1,058개소(누계) 선정(목표 934개소 대비 113.3% 초과 달성)
 -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 빈집철거*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 등 위해요소(석면 등)가 제거되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 * 빈집 2개년 누적 15,306동 정비(목표 15,660동 대비 97.7% 달성)
 - ** 취약지역사업을 통한 마을만족도 : (사업전)47점 → (사업후)83점
-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기준 소득금액 : '18년 91만원 → '19. 97만원)하여 농어업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중 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9천명 증가
- 행복나눔이 활동비 인상 및 폭염대비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행복나눔이 방문서비스 지원 확대
 - * 행복나눔이 인건비 인상 : '18. 1.2만원 → '19. 1.5만원
 - * 행복나눔이 지원 실적 : ('18.10월) 20,815명 → ('19.10월) 21,922(+1,107)
-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4시간 이동권 보장(심야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접근성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 *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국 81개 군지역 대상으로 확대
 -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농촌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향상
 - * 교통모델 이용자 수 : ('18) 1,935천명 → ('19.9) 1,963(목표: 2,500)

과거 (AS-IS)	개선 (TO-BE)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4.7점 •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29.7분 • (버스 대기시간) 34.4분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79.1점 •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6.5분 • (버스 대기시간) 7.7분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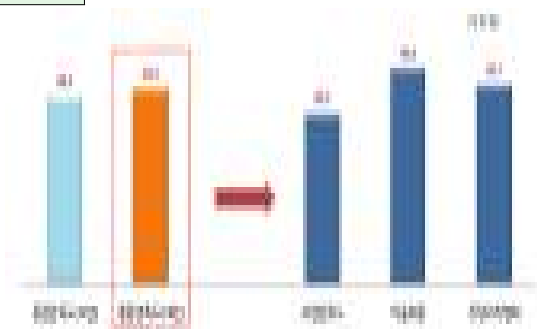
* 콘테스트 역대 수상마을의 방문객 연평균(‘16~’18) 14.8%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과 조사결과

◇ 콘테스트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만족도 85.5점

- (주민의식변화) 콘테스트 수상마을(‘14~’18) 대상 설문조사 결과 **91.2%가 ‘역량강화 등 마을 발전계기를 마련했다’**는 응답
- (마을화합) **‘마을 화합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94.7%**
- (콘테스트 행사 만족도) 행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 81.0점

* 종합만족도 = (주민의식변화 + 마을화합 + 콘테스트 행사만족도) / 3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과 조사결과 >

-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중심 1·2·3차 산업 연계를 위한 지역단위 지구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 인증사업자 수 : (‘17) 1,397개소 → (‘18)1,524 → (‘19) 1,624

** ‘19년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기초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 평균 고용창출 인원은 5.2%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네트워크 수(누적) : (‘18) 20개소/70개소 → (‘19) 24/77

- 농촌관광 상품다양화, 안전·서비스 품질제고, 홍보강화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촌관광객 수(전체/외국인):(‘16)1,001/16.4 → (‘18)1,237/22.0→ (‘19.11)1,307/23

- 농촌관광 자원간 연계를 강화한 콘텐츠 개발, 연차적 계획에 따른 서비스 품질제고 등을 통해 농촌관광 방문객 유치

* 농촌관광 매출액 : (‘18) 198.0 백만원 → (‘19) 203.5p

- 파워블로거·기자단 팸투어 연계 시기별·테마별 농촌관광지 홍보, 유튜브·SNS 활용 공모전 추진 등으로 홍보효과 증대

* 여행주간(5월, 9월), 여름휴가(‘19.6~8월) 등과 연계하여 할인행사, 특별 여행상품 운영, 이벤트, 유관부처 합동 캠페인 등 실시

**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공모전(6월), 농촌자원 활용 힐링 ASMR 공모전

□ 향후 추진계획

- 농촌공간계획 수립, 365생활권 구성, 빈집정비 등 지속적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마을 과소화 및 공동화 방지

* ('22년) 빈집정비 38,760동 정비 목표

- 농촌형 교통모델,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 ('22년)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수 462천명 목표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지구 육성을 통해 인증사업자 경영안정 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22년)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1,900명 육성, 융복합산업지구 36개 조성 목표

- 농촌관광객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및 콘텐츠 확충

* ('22년) 농촌관광객 1,450만명 유치 목표

- 농업·농촌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4차(2020~2024)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농촌진흥청)」에 반영

* 농업인 업무상 재해보장,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현장지원,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등

(전략목표 4)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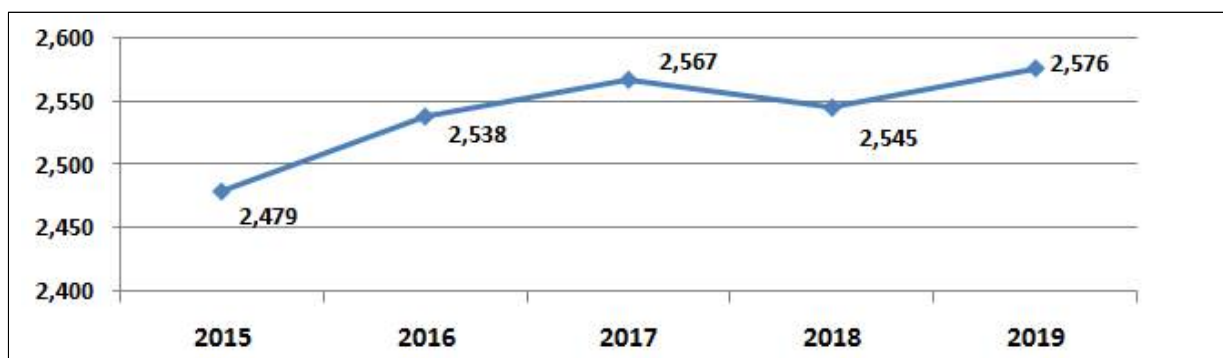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생산-가공-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체계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구축되었는지를 측정
- 조사기관 :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 조사대상 : 전국 3만5천 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조사
- 측정산식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 식품·외식분야 취업지수 합계

□ '19년 측정결과

- '19년도 식품·외식분야 취업자수는 2,576천명으로, 당초 목표(2,618천명) 대비 98.4%를 달성

<최근 5년간 식품·외식분야 취업자수>



- 식품제조업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7% 감소('18년 431.8천명 → '19년 416천명)하였으나, 외식업에서는 2.2% 상승('18년 2113천명 → '19년 2,160천명)하여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

□ 성과분석

-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처합동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수립
 -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2.4)에서 대책 발표
 - ** 5대식품 : ①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식품, ⑤ 수출 식품
- 청년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 강화로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
 - 외식분야 청년키움식당(5개소, 200명) 운영을 통해 창업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관·학 연계 푸드테크 창업교육' 실시(10팀)
 - 식품기업 청년 인턴십(100명), 해외한식인턴(100명) 및 해외시장개척단 청년인턴파견(80명) 등으로 청년들에게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신남방정책 추진 및 생산기반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 국가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 일본·미국·아세안 시장 확대 등으로 '19년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 유지
 - * 농식품 수출('19) : 70.3억불(1.5%↑) / 국가 전체 수출('19) 5,424.1억불(△10.3%)
-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 제고
 - 외식업 경영안정 지원 및 '푸드페스타 개최' 등 소비촉진을 통해 외식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전망·실태조사 등 정보 제공
 - 전통방식의 우리식품과 식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김치·전통주·발효식품 등 산업 기반조성 및 소비촉진 추진
 - *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19.3월)하고 도로공사와 MOU 체결('19.5월)로 국산김치 판로 확대,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지원(총 38개소) 및 체험프로그램개발·관광상품화 추진

- 부처협업을 통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등 산업 활성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통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가능 규정을 마련('19.3)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초안 마련, 2020년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본격 시행 예정

- 기업의 국산원료 사용을 제고하여 기업의 성장이 농업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사업 추진

* 계약재배 참여 농가 : '18) 11,372농가 → '19) 14,260농가

**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농산물 거래액 : '18) 911억원 → '19) 1,228억원

- 식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대상별 교육·체험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

* (영유아 대상 교육 전·후 성과조사) 아침식사(67.9점 → 72.8), 식품의 고른 섭취(66.4점 → 74.6), 지역농산물 선호도(67.4점 → 79.1점) 등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 발생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착 및 축산농장 HACCP 인증 강화 등을 통해 생산단계 먹거리 안전기반 구축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18년 동기간 대비 부적합률은 0.4% 감소하고, 농업인의 농약 PLS 인식도 지속 증가('18상 51.3% → '19하 71.5 → '19. 85.4)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인증 축산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6월~)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인증 확대 및 내실화

* HACCP 제품 표시대상 확대 : (현행) 도축장·가공공장만 표시 → (개선) + 농장까지

□ 향후 추진계획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이행을 통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 * 5대 식품 산업규모 : '18) 12조 4,400억원 → 22) 16조 9,600 → 30) 24조 8,500
 - * 5대 식품 일자리 : '18) 51,000개 → 22) 74,700 → 30) 115,800
-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인력 양성
 - 외식분야 청년키움식당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사업장(공유주방) 구성·운영 지원 추진('20 신규)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온 '청년식품창업 Lab'을 확대하여,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20~'23)
 -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한식인턴 및 해외시장개척단 청년인턴파견 등 지원 지속 추진
- 기능성 표시제 도입('20.상)에 맞춰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
 - * 기능성 원료은행('20~'23)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19~'22) 구축을 통한 기술지원 추진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망품목 육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여, '20년 농식품 수출액을 전년대비 7% 증가한 75억불 달성 추진
-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 수립·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책 마련
- 생산단계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수준 향상